

화이트헤드 연구

제17집

이 학술지는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출판되었음.

화이트헤드 연구

제17집 · 2008. 12. 30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차 례

-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 전 철 (한신대) · 9
- 심산(心算)양자철학
/ 권 오 대 (포항공대) · 35
- <단위 행태>unit attitude :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적 응용 개념 연구
/ 정 강 길 (서울불교대학원대) · 61

- 부록 123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연혁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정관
- 『화이트헤드 연구』 투고규정
- 『화이트헤드 연구』 심사규정
- 『화이트헤드 연구』 윤리규정
- An Overview of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임원명단

The Journal of Whitehead Studies
No. 17. December. 2008

ARTICLES

Whiteheads Verständnis von körperlichen Erfahrungen in seiner
frühen naturphilosophischen Phase

/ Chun, Chul · 9

Reckoning Quantum Philosophy

/ Kwon, O'Dae · 35

Study on Unit Attitude

: Sociological Application Concept of Whitehead's Philosophy

/ Jeong, Kang-Gil · 61

【원전 약호】

- AE *The Aims of Education*(1929),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AI *Adventures of Ideas*(1933),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2.
- CN *The Concept of Nature*(192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1.
- ESP *Essays in Science and Philosoph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7.
- FR *The Function of Reason*(1929), Boston: Beacon Press, 1958.
- IM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s*(19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IS *Interpretation of Science*, ed. A. H. Johnson, Indianapolis: Bobbs Merrill, 1961.
- MT *Modes of Thought*(1938),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PM *Principia Mathemat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0-13.
- PNK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Natural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9.
- PR *Process and Reality*(1929), corrected edition, 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RM *Religion in the Making*(1926), New York: The Macmillan Co., 1974.
- S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27.
- SMW *Science and the Modern World*(1925),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7.
- R *The Principle of Relativity: With Applications to Physic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22.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전 철 (한신대)

【한글요약】

화이트헤드 사상의 특징은 신체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해명에 있다. 화이트헤드는 전통철학적 작업이 ‘신체를 가지고’(withness of the body)라는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성찰을 도외시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하여 화이트헤드는 신체성과 감각지각의 지위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해명하려는 노력을 가하여 왔고, 이러한 관심사 속에서 인과적 효과성의 지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화이트헤드는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물리적 세계상, 관계론적 시공간의 성과를 자신의 자연철학적 반성과 형이상학적 구도 속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초기 화이트헤드시기에 나타난 신체성의 문제가 당대의 자연철학적 성과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성찰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시성의 상대성, 감각지각과 순간의 문제, 그리고 측정의 문제가 화이트헤드의 신체론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와 윤곽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신체성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body)과 상대론적 시공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relativity)이라는 20세기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두 논지가 화이트헤드의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통합되어 구현되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신체, 자연, 측정, 동시성, 상대성

투고일 : 2008년 11월 15일 심사일 : 2008년 12월 10일

I. 문제제기: ‘신체를 가지고’witness of the body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 사상의 특징은 신체(body)와 자연(nature) 혹은 신체와 환경(environment)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해명에 있다. 전통적인 근대의 철학과 인식론에 있어서 자연은 신체와 무관한 독자적인 진술의 대상이었으며, 신체는 그저 자연의 일부이거나 자연은 신체의 단순한 부분으로 정위된 측면이 강하였다. 사실 이러한 신체와 자연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론적 출발점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주도면밀한 비판은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의 주요한 작업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화이트헤드는 시각과 청각과 같은 고등한 감각지각의 자료에만 주목하여 전개된 철학에 의하여 지난 200여 년 동안 철학적 연구는 큰 한계와 문제점에 봉착해 왔다고 지적한다.¹⁾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그는 본격적으로 신체와 자연의 함수를 자신의 후기 형이상학적 체계(1923-1947) 안에서 긴밀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오늘날 보기에 매우 새롭고 신선한 방식의 진술을 우리에게 선사하였다.

화이트헤드의 진술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의미는 우선 다음과

1) MT 93/74. 화이트헤드는 전통 철학적 연구와 작업들이 경험의 후기 파생적 요소와 경험의 근원적인 요소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많은 철학적 난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과정과 실재에서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전통적인 철학적 연구의 문제점을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과 인과적 효과성(causal efficacy) 사이의 대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킨다. PR 310/162.

같다. 그의 인식론적 성찰에는 20세기 상대성이론의 주요한 논지, 관계론적 시공간이론, 그리고 화이트헤드 자신이 독특하게 구상하였던 기하학적 프로그램이 매우 조화롭게 스며있기 때문이다. 즉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철학적 지평과 자연과학적 지평을 그는 자신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논의 속에서 폭넓게 적용시키고 융합시켰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철학적 진술이 지녔던 문제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withness of the body)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인식의 출발점과 토대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배제하였다는 점이다.²⁾ 그러므로 화이트헤드는 지금 펼쳐지는 주체의 ‘세계’에 그 주체의 신체성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화이트헤드는 20세기 등장하면서 중요하게 발화되었던 시대 정신인 동시성의 상대성(relativity of simultaneity)과 상대론적 시공론을 자신의 인식론, 자연철학, 그리고 형이상학적 구도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정초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화이트헤드의 신체와 자연의 독특한 관계설정, 그리고 각각의 신체적 경험과 결부된 시공간적 사건의 다

2) 화이트헤드는 흄과 데카르트가 ‘신체를 가지고’(withness of the body) 라는 점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인식론을 구축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의 관점에서 이들의 철학은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의 측면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 제한되지 않고 지각과 인식의 보다 근원적인 층위를 정의하고 해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화이트헤드는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mode of causal efficacy) 라는 개념을 구상한다. 이에 관하여는 S 15/5, 50/31, PR 151/64, 179/81, 330/175. 특히 후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성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는 Dorothy Emmet, “A. N. Whitehead: The Last Phase”, *Mind*, New Series, Vol. 57, No. 227. (Jul., 1948), 271-272.

차원성과 실재의 본성 사이의 주도면밀한 관계설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신체성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body)과 상대론적 시공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relativity)이라는 20 세기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두 논지가 화이트헤드의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통합되어 구현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화이트헤드는 신체성과 자연인식의 문제를 논증하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신체성과 결부된 상대론적 시공간론의 논지를 구상하였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자연을 순간성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신체성의 문제를 화이트헤드는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의 상대론적 시공간론과 경험의 기하학은 이러한 신체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신체성, 명석판명함, 순간성이라는 자연의 다자성(multiplicity)의 국면과, 화이트헤드가 제시했던 상대론적 시공간론과 경험의 기하학이라는 자연의 제일성(uniformity)의 국면은 분명 상호 길항의 관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양자의 국면이 어떻게 화이트헤드의 체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서설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로, 신체성의 자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양식으로서 구현되는 순간성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논의를 따라가 볼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의식

의 명석판명함, 그리고 의식을 통한 동시적 세계의 자명함을 기저에서부터 해체해 버리고 신체성을 통하여 인지되는 세계 ‘표면’의 근거에 대한 존재론적 지위를 새롭게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동시성의 상대성(relativity of simultaneity)이라는 구상을 통해서 화이트헤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실재관의 바탕 위에서 신체 및 시공간의 다자성과 실재의 본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측정(measurement) 관념을 비판한 화이트헤드의 측정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어떠한 동일성과 동등성 또한 차이와 개별성보다 근원적일 수 없다는 기본적인 논지인 상대성의 원리(principle of relativity)³⁾는 그의 후기 형이상학 전체의 색조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측정론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네 번째는 이러한 신체와 시공간적 패턴의 다자성(multiplicity)과 실재의 일자성(eness) 사이의 이질적 양태를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기하학적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떻게 연관시키고 이론적으로 가교를 놓았는지를 성찰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신체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비판하고 또한 그러한 이질적 측면을 어떻게 접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PR 80/22.

Ⅲ. 신체적 경험과 순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연을 대면하는 신체적 경험의 방식과 순간의 문제이다.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도 그의 초기 자연철학(1915-1922)의 핵심 논의 가운데 하나를 ‘순간(moment)에 대한 분석으로 설정한다.⁴⁾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의식이 현실세계와 만날 때 불가피하게 구현되어지는 순간이라는 양식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유물론적인 물질론적 시공론과 상대론적 시공론이라는 큰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

물론 화이트헤드는 의식의 대상에 대한 현재적 인식을 순간적(instantaneous)인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분명 현재적 인식은 순간적 인식을 넘어서는 ‘시간의 확장’(stretch of time)이기 때문이다.⁶⁾ 의식의 자연에 대한 영상을 순간성으로 이해한 관점은 역사적으로 자연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와, 불변하는 궁극적 물질개념의 근거로 제 공되기도 하였다고 화이트헤드는 강조한다.⁷⁾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사건의 실재에 대한 인식과 결합은 시간체계와 결부된 ‘순간’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구성됨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⁸⁾ 더 나

4) CN 56-58, 62-65.

5) PNK 5-6.

6) PNK 64.

7) PNK 23.

8)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결부된 시간체계의 어떠한 순간에 놓인 사건입자에 의해 지시되는, 순간적 공간에 대한

아가서 이 순간은 실재 전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과 반영이 아니라 전체 자연의 추상으로 정위된다.⁹⁾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체적 매개를 통한 순간이라는 양식은 저 밖의 자연을 불변하는 물질계로 해석하게 한 근거가 되었다고 화이트헤드는 지적한다. 그리고 ‘순간’이라는 사태 자체가 환영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현실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신체성에 의거한 자연의 ‘물질화’와 그 물질화된 사태의 ‘자명성’의 문제를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물질적인 우주는 그 대부분이 직접적인 감각표상이라는 빈약한 기초 위에서 상상된 개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상상은 감각표상에서도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에서도 그것은 현실성을 지니기 때문이다.¹⁰⁾

우리가 경험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은 자연의 특화된 양상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개별적인 인간의 자연에 대한 모든 인식은 신체적 매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now-present here)라고 하는 형식을 얻게 된다.¹¹⁾ 즉 인간은 모든 자연과 환경을 신체적 사건과 매개된 ‘현재성’이라는 양식으로 투사하고 구현한다고 보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논점이다.¹²⁾

접근일 뿐이다.” CN 115.

9) “순간(moment)은 찰나(an instant)에 있어서 모든 자연에 대한 추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PNK 112.

10) Alfred North Whitehead, »The Anatomy of Some Scientific Ideas«, in: *The Organisation of Thought, Educational and Scientific*, Westport 1974, 155.

11) PNK 79.

12) PNK 79.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자연철학적 프로그램을 인간 신체의 자연에 대한 이해의 양식으로 구현되는 ‘순간’의 기저에 대한 존재론적 층위를 새롭게 복원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공간 지각은 시간이 걸리고 계기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찰들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간을 구성하는 관계들은 순간적 관계들이다.¹³⁾

이렇게 자연을 순간으로서 인식하는 의식, 사고, 지각은 그의 경험의 기본적인 양상에 비해서 후발적인 것들이다. 자연이라는 궁극적 실재의 측면에서 신체적 경험 자체는 추상의 국면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의식, 사고, 지각은 ‘추상화된 경험’을 다시 추상화하는 국면을 담고 있다.

우리의 의식에서 명석판명하게 드러나는 상(象)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험의 기본적인 사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파생적이고 부가적인 것들이다. 의식의 명석판명함은 그것 자체로 사건이지만 실재의 궁극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해볼 때 그러한 층위는 후기 위상적이며 파생적인 층위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각기 개별적인 주체들의 독자적인 시공간적 경험과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태로서의 자연의 통일성(uniformity)¹⁴⁾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끊임없이 가한다.

그의 자연철학 초기에 전개되었던, 다중적 시공간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태(matrix)로서의 자연이라는 문제제기는

13) PNK 6.

14) Alfred North Whitehead, »Space, Time, and Relativ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6 (1915-1916), 121-122.

후기 형이상학의 도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념과 범주들로 섬세하게 분화 및 발전의 과정을 겪게 된다.

IV. 신체와 동시성

1. 몸의 세계와 동시성의 세계

모든 주체의 실재와의 경험은 궁극적인 면에서 실재와 비매개적 직접성(im-mediate immediacy)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에 대한 의식과 사고와 지각, 그리고 관찰에 의해 드러난 세계는 사실 자연의 순간적인 양태만을 제시할 뿐, 그 세계와 연관된 어떠한 방식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천 광년 전의 빛을 현재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천 년 전의’ 별에 대한 영상에는 빛이 달려온 천 년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¹⁵⁾ 이렇게 우리의 자연에 대한 순간적인 영상은 우주의 존재론적인 세계선인 ‘지속’(duration) 안에서, 인식론적인 세계선인 ‘현재화된 지속’(presented duration)의 표면만을 반영할 뿐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순간적인 인식은 고질적으로 동시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의 자연에 대한 순간적인 영상은 적어도 그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동시적 세계로서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는 다른 어떠한 관찰자에 의해 직접적인 인과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나만의 동시적 세계이다. 화이트헤

15) PNK 85.

드는 자신의 초기 자연철학 저서에서 이러한 전통적 시공간과 사건론의 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대안적 시공간과 동시성의 문제를 언급한다.

“시간에 대한 고전적 견해를 따르면 단 하나의 그러한 순간 moment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현대적 견해를 따르면 사건입자 P를 관통하는 무한한 대안적 순간들 moments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대안적 순간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이한 의미에 각각 상응하는 것들이다.”¹⁶⁾

화이트헤드의 자연철학적 기획은 당시의 시간에 대한 고전적 견해, 즉 단 하나의 동시성을 전제하며 그를 근거로 구상되어 지는 시공간의 실재론을 비판하고, 무수히 많은 대안적 시공간과 동시성의 영역을 포섭해 내는 자연 실재론의 기획을 중요한 동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자연철학의 시공간에 대한 자연철학적 반성과 기초적인 구도는 소위 후기 형이상학(1923-1949)을 독특하게 지탱하고 있는 시공간이론, 인식론, 다자의 존재론 등등의 핵심 논거로 구체화된다.¹⁷⁾

2. 동시성의 상대성(relativity of simultaneity)

16) R 30.

17) 후기 형이상학적 논의의 중요한 토대로서 설정되었던 초기 자연철학적 성찰인 <동시성>과 <상대성이론>에 대하여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서술한다. “기묘하게도 이러한 형이상학적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도차도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relativity theory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 PR 154-155/65.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주체를 통하여 구현되는 순간적이고 동시적인 세계는 다른 동시적 세계와 인과론적 독립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고 절대적인 독립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의 동시적 세계는 이 우주의 물리적 조건에 의하여 허용되어진 제한적 관점에서 파악된 자연이다. 이러한 순간적인 자연의 영상은, 자연이라는 실재가 허용하는 존재론적인 세계선인 ‘지속’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동시적 세계는 내적으로 자유로우나 외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동시성의 상대성(*relativity of simultaneity*)은 자연에 대한 개별자들의 시공간적 세계경험의 유일회성을 지지하나 외적인 구조의 측면에서는 주체의 절대적인 자유가 포기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허용됨으로서 관찰자가 자연을 ‘신적인 관점’(*sub specie aeternitatis*)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포기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자연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우주에 대한 상대적 관점(*relativistic frame of reference*)에 의해 제한된 자유에 의거하여 형성되어질 뿐이다. 만약 이러한 상대성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극단적 일원론의 세계로 이해¹⁸⁾될 것이며, 그것은 우주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에서 한 발도 넘어서지 못한 결론들로 귀결된다고 화이트헤드는 보고 있다.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를 통한 자연의 경험’은 어떠한 무한성(*infinitum*)에 기원을 둔 우주에 대한 신체적 추상화, 혹은 자신의 주체적 입각점에 의해서 저 밖의 세계를 동시적 세계에 신체적으로 유한화(*finitum*)함을 뜻한다. 이러한 추상화는 우주와 자연을 동시성의 국면으로 투사화, 신체화, 파악함을 말한

18) PR 286/148.

다.¹⁹⁾ 주체에 있어서 주체 밖은 자연이 되지만, 사실 이 주체 밖은 메타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주체가 거하는 영역을 뜻한다. 즉 주체와 자연이라는 도식의 관점에서 주체 밖은 자연이 되지만, 자연의 실제적인 여건들로 이해될 수 있는 주체들의 현실세계의 관점에서 주체 밖은 다른 복수 주체들이 거하는 영역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묻고 있으며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전망 속에서 추상화 하고 있다. 어차피 어떠한 두 주체도 동일한 현실적 입각점을 공유하지는 않는다.²⁰⁾ 그러므로 우리의 실재는 주체의 수만큼 주체 외부의 자연에 대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추상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동시성’은 신체의 자연에 대한 신체적 실현의 형식을 뜻하며, 동시성의 상대화란, 각각의 주체가 특정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동시화 하기 때문에 각각의 동시적 세계는 결코 단일한 하나의 체계로 환원될 수 없음을 뜻한다.

각각의 동시적 세계의 소통불가능성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암시적 지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원론적으로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를 먼저 제시한 아인슈타인²¹⁾과 그

19) 초기 화이트헤드의 시공간론에 있어서 동시성이 함의하고 있는 지평은 후기에 들어가면서 더욱 폭넓게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론적으로 확장이 된다. 특히 후기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성찰에 있어서 동시적 계기는 존속체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여건으로까지 기여된다. “[...] 동시적 계기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존속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각 주체의 경험에 있어서의 이러한 간극은 현시적 직접성으로 메워진다.” PR 552/318.

20) “자연 안의 서로 상이한 입각점으로부터 그들 양자는 동일한 사건들을 겪으며, 이 사건들은 온전히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PNK 32.

관점을 수용한 화이트헤드²²⁾ 사이에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의 근거로 채택한 기하학적 조건과 기초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이트헤드는 상대성의 원리가 포괄적으로 근거될 수 있는 기하학적 기초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자연철학의 시기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이미 화이트헤드는 1915년부터 점을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정의 가능하다고 보는 관계론적 기하학의 공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한다.²³⁾

화이트헤드는 상대성의 문제를 물리적 세계상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실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하한의 물리적 위상과 조건 하에 진행되는 개별적 관점에서서의 측정 또한 결코 완벽한 일치를 보증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화이트헤드의 자연철학적 프로그램의 발전과 변화를 헤아려 보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인식론적으로 현시적 직접성의 토대인 인과적 효과성의 범주를 새롭게 구상한 바와 같이, 물리학적 상대성의 원리를 근거할 수 있는 기하학적 관계의 범주를 화이트헤드는 구상하고자 하였다.

V. 신체성과 측정의 문제

21) Albert Einstein, »Zur Elektrodynamik bewegter Körper«, *Annalen der Physik* 17 (1905), 893.

22) “그러나 오늘날의 관측의 결과에 의하면 무한한 그와 같은 시간 계층화의 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R 54.

23) Alfred North Whitehead, “Space, Time and Relativ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s.* 16 (1915-1916), 106.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있어서 측정의 문제(the problem of measurement)는 전 저작을 거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²⁴⁾ 특히 후기 형이상학에 있어서 측정의 문제를 통해서 화이트헤드가 제시했던 논지²⁵⁾는 바로 실재를 해명하는 경험과학의 중요한 도구와 전제로 작동되고 있는 측정가능성을 물리적 층위의 논의를 넘어서 그 근거에서부터 조명하려는 목적에 있었다. 화이트헤드는 인식론적 관점에 있어서도 신체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경험세계에 포착되지 않지만 바로 그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세계 기저의 효능(effect)에 대한 범주적 기획을 가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그는 실재에 대한 경험과학의 측정 또한 적어도 이 효능(effect)의 지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바로 인간의 감각여건과 관련되어 있는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에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모든 경험적 측정의 감각적 근거가 되는 현시적 직접성의 체계는 결코 유동하고 생성하는 실재의 본질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모든 신체성에 의거하는 지각은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를 벗어날 수 없는 지각이며, 이러한 이유로 외적 세계의 근원적 측면과 결부된 인과적 효과성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헤드는 측정의 가능성과 근거는 어느 경우이든 직접적인 감각지각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외적 세계는 신체성에 의해 ‘뒤틀리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

24) PNK 83-90.

25)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의 4부 5장 전체를 측정의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자신의 논지를 구성한다. PR 558-576/322-333.

토를 바탕으로 측정과 합동의 지위가 명료하게 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신체성과 동시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은 오로지 <신체>를 <가지고 있음>witness of the body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외적인 동시적 세계를, <신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하학적 관계에 있어서만 나타낸다는 것.²⁶⁾

이러한 문제제기와 전망 속에서 신체는 어떻게 자연을 해석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화이트헤드는 자신이 구상한 독특한 ‘기하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대안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그에 있어서 물리적 세계에 대한 기하학은 인간의 측정양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문제 삼는다.²⁷⁾

그에 의하면 모든 정밀한 측정은 인간의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의 지각에 관련된 제한된 측정이라고 그의 후기 저작인 과정과 실재에서 말한 바 있다.²⁸⁾ 즉 우리의 모든 관찰과 측정은 부득이하게 실재의 ‘표면’²⁹⁾에 제한된 것들이다. 사실 이러한 측정에 대한 논의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26) PR 576/333.

27) Michael Hampe, *Alfred North Whitehead* (München: Beck, 1998), 77.

28) PR 565/327.

29) 본 글에서 실재의 표면과 내면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의한다. 즉 실재의 매개적 비매개적, 물리적 정신적 측면은 실재의 표면적 측면과 내면적 측면으로 바꾸어서 이해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실재의 표면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층위를 <외관>appearance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바 있다. PR 569/329.

첫째, 모든 측정은 고등한 감각지각에 의거한 경험적 지평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측정은 감각여건과 결부된 경험세계 안에서의 진술이기에, 모든 경험의 원천이 되고 경험을 산출해 내는 실재의 본성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 모든 측정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신체적 조건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측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에 의해 투사된 실재의 측면에 대한 측정이지, 신체 구현의 근거가 되는 실재에 대한 본질적 측정은 될 수 없게 된다.

셋째, 우리의 사태는 구체적 생성으로부터 추상화된 구현에 의거한다. 측정의 조건도 이러한 추상화의 역학과 유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측정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할 때, 그 측정조건이 하부토대에 대한 고려 속에서 측정의 의미와 한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사막과 북극의 30센티 자로 그 양 지역의 어떠한 대상을 측정하여 동일한 길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동이라는 근거는 30센티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워지지는 않는다.³⁰⁾

측정에 대한 화이트헤드 후기 형이상학의 기본적인 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동기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자연철학적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 *Einstein's Theory: An alternative Suggestion* (1920)³¹⁾에서 시공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30) 화이트헤드는 그의 후기 형이상학 저작인 과정과 실재에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동일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 합동에 대한 검사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동의 의미는 아니다.” PR 568/328.

31) Alfred North Whitehead, »Einstein's Theory: An Alternative Suggestion«,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v. 12.2 (1920).

측정 가능성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개진한다.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도식을 바탕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의 문제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대론적 시공간의 문제는 각각의 관찰자에 있어서 시공간에 대한 다른 측정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즉 한 관찰자가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다른 관찰자의 경험과 동일해야만 할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³²⁾

이러한 아인슈타인과 20세기의 혁명적인 시공간론이 던진 대안적 ‘측정가능성’의 문제를 화이트헤드는 그의 자연철학 안에서 숙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체계 안에서 더욱 더 깊이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각각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시공간 측정은 궁극적으로 통일된 구조 안에서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관점을 배격한다.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은 각각의 이질적인heterogenos 특질을 지닌 다수적 시공간의 경험들과 물리적 관계들을 어떠한 근거 없이 통일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꼴이 된다.³³⁾

이러한 난점 앞에서 이러한 시공간적 체계의 물리적 이질성에 대한 제거와 극복의 수단으로 화이트헤드는 기하학적 프로그램을 동원한다.³⁴⁾ 즉 그는 물리적 이질성heterogeneity의 문제를 기하학적 구상을 통하여 통합해내려는 시도를 가한다. 화이

32) Alfred North Whitehead “Einstein's Theorie”, *Science and Philosophy* (Paterson: Littlefield, Adams & Co., 1964), 307.

33) Cf. Michael Hampe, *Alfred North Whitehead*, 82.

34) R v-vi.

트헤드의 기하학은 아인슈타인의 작업에서 드러난 물리적 관계의 이질성을 자신의 기하학적 체계 속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³⁵⁾

그렇다면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물리적 세계의 경험과 측정이 주는 난점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소위 소통가능성과 측정가능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경험의 대상에 대한 진술과 대상에 대한 측정의 실재론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존재론적 지위를 체계적인 전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식을 구성해야 한다. 즉 경험의 대상에 대한 진술(Physics)은 바로 그 경험의 근거에 대한 도식(Geometry)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화이트헤드의 기본적인 착상이다.³⁶⁾

VI. 신체적 경험과 기하학

1. 경험과 기하학적 변형

주체라는 사건과 신체성에 의거한 신체라는 ‘볼륨’과 ‘막’의 탄생은 개별적인 사건과 신체가 자연과 우주로 와해될 수 없다는 궁극적 사태를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주체가 지니는 불치

35) 화이트헤드의 상대성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차이에 대한 일별로는 Oliver von Ranke, *Whiteheads Relativitätstheorie* (Regensburg: Roderer Verlag 1997), 88.

36)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물리학(physics)은 자연에서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관계들에 관하여 해명하는 학문이며, 기하학(geometry)은 자연의 기저에 놓여있는 통일된 관계성에 관하여 해명하는 학문이다. R v-vi.

의 개별적 성격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추상화’³⁷⁾는 바로 환경을 대면하는 주체의 생존방식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자연경험에서 드러나는 순간성의 양상은 적어도 실재에 대한 표면적 인식일 뿐이라 하더라도 주체의 자명한 구성사태이다. 그것은 추상이지만 자명한 사건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체의 ‘막’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자연에 대한 측정가능성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거기에 요구되는 작업가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우선 어떻게 신체적 ‘주체’는 자연을 변형하여 투사하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기하학적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후기 작품인 과정과 실재 4부에서 주체는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해 내고 자연이 주체를 통하여 투사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³⁸⁾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분석을 자신의 중요한 토대와 가설인 ‘영역과 결합의 기하학’(geometry of region and connection)³⁹⁾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시도한다.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결합관계’(relation of connection)이며 그 구체적인 ‘영역’(region)을 갖고 있다는 가설에서 기하학을 구성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성의 형이상학을 구상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기하학은 점과 선의 기하학이 아니라 영역(region)과 결합(connection)의 기하학이다. 즉 다시 말하여,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기하학을 통하여 절대공간에서 관계공간으로의 전환을 이끌

37) MT 92/73.

38) PR 540-557/310-321.

39) PR 515-516/294.

어내고자 노력하였다.⁴⁰⁾

화이트헤드의 경험적 기하학은 이미 초기(1915)의 자연철학적 저서⁴¹⁾에서 맹아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후기 저서인 과정과 실재(1929)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⁴²⁾ 특히 화이트헤드는 전통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의 점선면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자신의 상대성이론에 의거한 시공간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하학을 정의한다.

점은 신체성을 지니는 주체에 있어서는 동질적인homogenos 사태가 아니라, 신체성의 추상화에 의거해서 대상의 관계 속에서 추상된 이질적heterogenos 사태라고 정의하는 화이트헤드의 기하학적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주체가 자연을 어떻게 기하학화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푸는 첫 단추이다.

화이트헤드가 아인슈타인의 공간을 이질적heterogenos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⁴³⁾ 즉 공간은 일종의 사건에서부터 추상된 사태인데 그 기저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근거 없이 추상화된 공간에서부터 자신의 시공간이론을 구성하였다면, 그 공간은 화이트헤드의 눈에서 볼 때 이질적인 것이며, 이질적인 것을 체계내적으로 동질화 하지 않은 채 구성한 부적절한 이론적 구성으로 지적된다.

40) 전철 “화이트헤드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창조성과 신 개념에 관한 연구”, 신학연구 (오산: 한신학술원 신학연구소, 2006년 제48집), 238. 특히 화이트헤드의 경험적 기하학 구상의 의미에 관하여는 236-239 참조.

41) Alfred North Whitehead, “Space, Time and Relativ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s. 16* (1915-1916), 104-129.

42) PR 515-539/294-309.

43) 아인슈타인의 시공론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정의 및 비판에 대하여 Hans Günter Scheuer, *Die Prozessphilosophie Alfred North Whiteheads und die Physik des 20. Jahrhunderts* (Aachen: Shaker Verlag, 2005), 231.

2. 경험의 기하학의 의미

인간 그리고 신체의 자연과 실재에 대한 진술은 신체를 통한 해석이며,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 구현되고 투사된 사태라는 관점을 화이트헤드는 기하학적 프로그램 속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며, 그러한 적용의 산물은 그의 ‘경험의 기하학’(geometry of experience)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동시에 몸과 얽여서 구분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변형의 영상을 질료로, 자연의 실질적인 국면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또한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조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자연은 이미 우리의 신체에 의해 뒤틀려 이해된 이질적인 사태들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이라는 실재는 주체에 의해서 뒤틀려 드러나는지를 역추적하기 위한 빗장을 그는 신체와 자연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조명 속에서 열고자 했다. 아마 그의 이러한 기하학적 프로젝트는 신체와 자연 사이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다리를 놓고자 했던, 대단히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스케일의 기획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성은 자연과 환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성에 대한 성찰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중요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신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과 환경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성찰 속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지위가 더욱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성에 토대를 둔 감각지각은 자연을 순간성이라는 양식 속에서 해석해 낸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순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상(象)의 토대를 한 편으로는 동시성의 상대성의 관점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신체성의 본질인 환경의 추상화라는 기능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지각론의 정당성을 기저에서부터 해체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신체성과 자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질적 관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질성에 의거한 관점에서 물리적 세계의 측정에 대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붕괴가 된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자신이 구상한 ‘경험의 기하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체와 세계의 이질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가한다. 우리는 신체와 자연의 깊은 해리, 다차원적 시공실재론, 그리고 측정의 토대에 대한 붕괴를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해내는 화이트헤드만의 독특한 자연철학적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후기 형이상학으로의 풍요로운 발전 속에서 더욱 구체화가 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Einstein, Albert: »Zur Elektrodynamik bewegter Körper«, *Annalen der Physik* 17 (1905), 891-921.
- Emmet, Dorothy: »A. N. Whitehead: The Last Phase«, *Mind, New Series, Vol. 57, No. 227.* (Jul., 1948), 271-272.
- Hampe, Michael: *Alfred North Whitehead*, (Beck) München 1998.
- Ranke, Oliver von: *Whiteheads Relativitätstheorie*, (Roderer Verlag) Regensburg 1997.
- Scheuer, Hans Günter: *Die Prozessphilosophie Alfred North Whiteheads und die Physik des 20. Jahrhunderts*, (Shaker Verlag) Aachen 2005.
- Whitehead, Alfred North: »Space, Time, and Relativ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6 (1915-1916), 104-129.
- Whitehead, Alfred North: »The Anatomy of Some Scientific Ideas« (1917), *The Organisation of Thought, Educational and Scientific*, (Greenwood Press) Westport 1974, 134-190.
- Whitehead, Alfred North: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Natural Knowledge* (19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25.
- Whitehead, Alfred North: »Einsteins Theorie« (1920), *Science and Philosophy*, (Littlefield, Adams & Co.) Paterson 1964, 303-314.
- Whitehead, Alfred North: *The Concept of Nature* (1920),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2004.
- Whitehead, Alfred North: *The Principles of Relativity with Applications to Physical Science* (1922),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2004.
- Whitehead, Alfred North: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1927), (The Macmillan Co.) Cambridge 1958. (문창욱 역, 『상징활동 - 그 의미와 효과』, 동과서, 고양, 2003)
-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orrected edition von David Ray Griffin und Donald W. Sherburne (1929), (The Free Press) New York 1978.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민음사, 서울, 1991)
- Whitehead, Alfred North: *Modes of Thought*. Six Lectures giv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8), (The Free Press) New York 1968. (오영환 문창옥
역, 『열린 사고와 철학』, 고려원, 서울, 1992)

Whitehead, Alfred North: *Science and Philosophy* (Littlefield, Adams & Co.)
Paterson, 1964.

전 철, “화이트헤드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창조성과 신 개념에 관한 연구”, 『
신학연구』(오산: 한신학술원 신학연구소, 2006년 제48집), 227-264.

[Abstract]

Whiteheads Verständnis von körperlichen Erfahrungen in seiner frühen naturphilosophischen Phase

Chun, Chul (Hanshin University)

Das Charakteristische an Alfred North Whiteheads Arbeiten liegt darin, dass sie eine besondere metaphysische Betrachtung zwischen dem Körper und der Natur anstellen. Whitehead kritisiert, dass die klassische Wahrnehmungstheorie, welche die Phänomene Leiblichkeit und Körperlichkeit nur ungenügend problematisiert, durchweg statisch konzipiert ist. Dagegen argumentiert Whitehead, dass die Welt aus der körperlichen Wirkung zur Welt zu verstehen sei, auf Basis seiner Wahrnehmungstheorie, der Relativitätstheorie und der Geometrie.

Whiteheads Ziel in der frühen naturphilosophischen Phase ist es, durch seine eigene Theorie der Leiblichkeit die dauernde Wirklichkeit des Universums einheitlich zu erklären. In diesem Sinne schlägt Whitehead ein Konzept der »causal efficacy« vor. Er verbindet seine Wahrnehmungstheorie mit einer Kritik an der klassischen Raum-Zeit-Theorie. Wenn Raum, Zeit und subjektive

Welt für sich selbst in der Absolutheit existieren könnten, wären sie nicht zugänglich für unsere jeweiligen je individuellen Raum-Zeit-Erfahrungen.

Das Ziel dieses Aufsatzes ist es, zu zeigen, wie in Whiteheads früher Naturphilosophie und Metaphysik die wirkliche Welt aus den Funktionen und Wirkungen des jeweiligen Körpers eine klare Einheit des relativistischen Universums hervorzubringen vermag.

Key words : body, nature, measurement, simultaneity, relativity

심산(心算)양자철학

권 오 대 (포항공대)

【한글요약】

화이트헤드 유기체철학의 근본바탕은 20세기 초 양자론과 상대론에 닿는다. 당시의 양자론 중 파동특성과 연계한 기본 진동 개념에 기초한 과정이론의 전개가 특이하다. 당시 아인슈타인, 보어 등이 내세운 여러 이론 골격의 리뷰로써 화이트헤드 이론의 조직을 고찰하며, 새로운 객관적 계량화, 즉 심산(心算)의 전망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신인초공간의 텐서 특성에 기초한 ‘심산양자철학’의 기술로 시작한다. 신인초공간의 상호작용은 객관적 관측이 불가능한 영의 텐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신인초공간의 상호작용들이 텐서의 특성을 가짐을 상정하므로, 그러한 관측불가능의 무한 랭크 텐서들이 부분적으로 관측가능의 벡터들의 공간으로 투사되었을 경우에는 관측가능의 벡터공간을 이루는 심산양자들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심산양자들을 위한 텐서의 신인초공간을 이제 ‘현실적 존재’의 화이트헤드 벡터공간과 비교하며, 그의 ‘영원한 객체’들이 관측불가능의 텐서공간에 대응하는 것도 고찰한다. 상기 두 가지 공간의 근본적 차이는 화이트헤드우주 공간개념이 진동에 뿌리를 둔 것에 비하여 심산양자철학의 우주는 진동과 질서를 함께 고찰하는 데에 기반한다.

한편, 폴킹혼의 최근 양자신학이 질적 고찰에 그치는 반면에, 심산양자철학은 계량화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종래의 과학 영역에서도 좀 더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양자화 과정을 위한 일례로 혁명현상과 과학의 임계현상을 함께 정리한다.

【주제어】 신인테리어, 화이트헤드, 심산양자

투고일: 2008년 10월 31일 심사일: 2008년 12월 05일

I. 서론

1917년 Einstein은 Bohr 원자 준위의 천이가 발생할 때 빛이 유도과정(induced process)으로도 생성된다는 논문을 썼다. 이 경우 보통은 자발과정(spontaneous process)이란 수순을 거치며 원자 준위가 감소한 천이 에너지[$E = h\nu$]만큼 ‘포톤’을 내며 발광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는 광파가 있을 경우 ‘induced(or stimulated) process’란 별도의 과정도 거치며 생성되는 포톤들이 있다는 가설을 밝히며 천이과정을 두 가지로 분류 제시한 것이다.[1] 이것은 그가 1905년 처음 ‘포톤’이란 광파의 양자화, $E = h\nu$, 가설을 세우고 유명한 ‘광전효과’ 논문을 쓰던 것에서 다시 큰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것이었다.[2] 즉 광파를 다시 포톤에 포용하는 동시에 파동과 입자의 상관성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10여 년에 걸쳐, Schrödinger 파동역학이 성숙하고 de Broglie의 파동-입자의 이중성이 발표되는 것과 맥이 닿는 한편 Heisenberg, Dirac을 거친 이론들이 발전 결국 양자장론으로 합류한다.

유도과정에서 생성되어 복사하는 광파계(radiating optical field)들은 모두 결맞음(coherence)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무질서하게 생성되는 자발과정 광들에 비하여, 주변의 평균장 효과(mean field effect)에 따라 유도과정 포톤들이 질서계로 상전이(phase transition)한 것으로 해석한다.

상기 Einstein의 유도과정 이론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광자 개념에 파동 개념이 끼어들었음은 위와 같다. 한편 그 이론이 발표되고 수십 년이 지난 1960년 전후 레이저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가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3], 이것까지 Einstein이 예견할 수는 없었고 레이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작고하였다. 본 논문과 연계하여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상기 무질서-질서의 상전이 현상이 동반하는 자연계의 대칭성을 다시 생각하게 함이다.

유도과정 이전의 광자들은 결이 맞지 않는(incoherent) 파동들인 반면, 유도과정 이후의 광파들은 결이 맞는(coherent) 파동들의 질서계 집합체로 변환되었다. 즉 레이저가 생성되는 유도과정이 시작되려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원자들의 농도의 분포반전(population inversion)이 필요조건인데, 이 조건이 만족되면서 무질서계가 질서계로 변환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결 없는 광파들의 ‘랜덤’대칭(‘random’ symmetry)의 계가 결맞은 광파집합의 ‘깨어진’ 대칭(‘broken’ symmetry)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깨어진’ 대칭 이론과 관련된 ‘남부’ 등 일군의 학자들이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이 이번 가을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랜덤 대칭을 기술하는 저자의 얘기는 그와는 좀 다른 ‘대칭’의 문제이고 어떤 대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각인각색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저자는 위의 경우처럼 정의한다.

상기 양자론과 상대론이 발표된 충격은 20세기 초 A. N. Whitehead가 ‘과정’이론과 ‘유기체철학’을 수립하는 데도 밑바탕이 되었던 한편, 상기 파동-입자 이중성은 1970년대 인도 및 중국의 철학사상과 소립자의 양자장론까지 대비시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Tao of Physics’란 책이 나오고 80~90년대 신과학의 태동이라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4] 이제 A. N. Whitehead 가 그의 철학을 수립한 바탕을 살펴보고 본 논문

의 주제를 함께 전개하기에 앞서 밝히는 바는, 그의 이론의 세밀한 부분들과 본 논문 주제의 핵심 내용을 여과 없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과학 배경을 가진 저자의 시각차이로 인한 해석의 간극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II. 화이트헤드의 진동, 그리고 대칭과 영

화이트헤드는 유기체철학의 현실적 존재(actual entities :AE)의 한 유형으로서, 물질적 실체로 접근한 데카르트 방식보다도 정신적 실체로 접근한 로크의 특수한 방식이 더욱 깊이가 있는 철학적 기술 방식으로 수용한다. 대체적으로 이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單子論)에서 유추되는 교훈이다. 라이프니츠의 단자(monad)는 정신에 관한 당시의 관념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가장 멋진 표상이 된 것이다.[5: PR19]

한편 양단의 균형은 유기체철학이 더 잘 유지하며, 이는 정신활동으로 접근한 로크의 방식을 일반화함으로 출발한다고 화이트헤드는 설명을 첨가한다. 그러한 설명에서 그는 명제와 범주의 방식들을 도입시키는데 이들은 파동-입자 양면성에 일부 기초하고 있다.[6]

우선 그는 다차원으로 접친 시공간 매니폴드란 공간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걱정을 했지만, 영원한 객체(eternal objects: EO)와 내향적 관계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여하튼 그의 철학은 양자 개념에서 출발하며, 특히 파동특성과 결부된 기본 진동(elementary vibration, or oscillation)에 근거한다. 그러한 설명에서 그는 명제

와 범주의 방식들을 도입시키는데 이 근거의 진동 개념이 파동-입자 양면성의 바닥에 용해된 것이다. 기본입자들의 붕괴현상과 관련한 에너지 진동개념은 20세기 현대물리로 일반화되었으며, 이를 다차원적 시공간 매니폴드의 틀 안에서 유기체의 주요 변형 현상들까지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 극히 자연스런 것이다. 그는 전자의 궤도운동이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되는 것을 특히 주목하였다. 아무튼 다른 경우들까지 구체화하며 그의 유기체철학을 일반화하는 고찰들은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더 논하기 전에 폴킹혼이 파동-입자 이중성 관련하여 신학적 ‘영’을 천착한 사실에 잠시 머물러 보자. 그는 대양의 파도와 음파를 우선 고려한다. 이 맥락에서 맥스웰(J. C. Maxwell)은 19세기에 광파를 위한 매질로 에테르(aether)를 상정하면서 빛이란 바로 전자기파임을 보여주었는데, 에테르 가설 부분은 유명한 마이켈슨-몰리 실험이 1887년 오류임을 밝혔다.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은 이렇게 에테르가 없는 진공의 공간을 택하게 된 것이며, 전자파의 계(electromagnetic fields)가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1926년에는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 발표되는데, 이는 물체의 파동과 혼동을 일으키나, 사실은 본(M. Born)의 존재확률 파동을 기술하는 이론이었다. 그 파동함수는 딱히 보여줄 수는 없는 전자의 양자상태가 존재할 잠재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7]

폴킹혼은 위 개념을 계속 확장해간다. 신의 영(혹은 신의 바람)이 처음 혼돈의 물 위를 돌아댄다. 후에는 신의 영이 쏟아지는 약속이 된다. 또는 권능의 선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시 신약에서는 성령이 되면서, 예언을 이루고, 필요한 능력을 주며,

나아가서는 영이 개입되는 좀 더 개인화한 형태로 발전하여 굳어진다. 4세기경을 지나면서 성령개념이 더욱 성화되며 마침내 삼위일체의 제3위로 정착한다.

상기 내용과는 달리 현대 뇌 연구에 기초한 의식관련 뉴런 활동에 연계하여 신경과학적 접근 노력들이 21세기 이후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8]

그렇지만 현 논문은 진동과 랜덤 위상 대칭성 논의까지만 한정하고, 심산양자 (RQ)관련 신인초공간이란 텐서공간을 소개하면서, 유기체철학에 수용한 명제들로 구성되는 화이트헤드의 벡터공간과 비교 분석함에 주력하며, 그 외 경우들을 위한 추가적인 확장논리들은 배제될 것이다.

뉴턴, 피타고라스, 플라톤이 우주만물을 이해하는 데 수학을 강조한 걸로 유명하지만, 화이트헤드 역시 실체적 우주를 주재하는 수학원리 탐구에 주력하였다. 전술한 바처럼 화이트헤드는 양자론적 철학개념이 파동관련 기본 진동이며 이 현상을 다차원 시공간 매니폴드로의 확장한 유기체적 변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유기체 우주 개념을 택함으로 그는 17세기 유물론 철학을 극복하려 하였다.[6]

그렇지만 자연은 동적인 (즉 파동성의) 본성 외에 ‘랜덤’ 대칭성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05년 빛의 입자인 광자(photon)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이미 수립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즉 $E = h\nu$ 수식이 포톤의 진동에너지임을 나타낸 것이다. 1917년 들어 아인슈타인이 하향성 천이과정을 따로 논하면서 자발과정(spontaneous process) 외에 전자파 존재로 인한 유도과정(induced, or stimulated, process)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우리

는 사실상 원자-파동의 상호작용계, 즉 입자-파동의 이중성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서고 있었다.

이전 챕터에서 역시 강조된 바, 유도과정에서 생성된 광파들이 위상의 질서를 갖게 하는 ‘결맞음’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래서 레이저는 한 방향으로 직진하기도 하고 멋진 홀로그램들도 만들어진다. 이 유도과정의 광자들 파동이 ‘랜덤’ 대칭에서 ‘깨어진’ 대칭으로 변환되는 것이 혼돈계에서 질서계로 상전이한 것이라 하였다.

중심주제를 전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쓴 종교 관련 자료를 약간 발췌한다.[9, 10]:

[1] Einstein이 CALTECH 방문교수로서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할 즈음 뉴욕 타임즈 매거진의 요청으로 종교와 과학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한 내용 중 발췌(1930.11.9):

[중략]

원시인들은 굶주림과 맹수와 병고의 두려움 등에 기인한 ‘두려움의 종교’에 매달렸다. ... 유대성서 내용들이 증거하는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도덕 종교’를 다시 발전시켰으며, 신약성서도 이를 연장 발전시켰다. 문명사적인 모든 종교들, 특히 동양사회에서, ‘도덕 종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종교적 경험의 제3단계가 있다 하겠는데, 순수한 경험으로는 드문 일이지만, ‘우주적 종교 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감성을 깨닫고 그 감수성 활동이 보존되도록 함이 인문과 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나는 믿는다. ... [중략]

[2] Einstein이 Princeton 신학대학에서 1939년 5월 19일 행한 초청강연[‘Out of My Later Years (1950)’에 수록] 발췌.

[중략]

그러나 똑같이 명료한 사실은, ‘무엇인가(과학)’에 관한 지식은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종교)’는 지혜로 이르는 길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 [중략]

(종교와 과학) 둘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성과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 진리에 대한 열망과 깊은 이해… 이러한 감성들은 분명 종교적 영역에서 피어난다. … 그러한 깊은 신앙심이 없이 순수한 과학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무지몽매한 것이다.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중략]

생각해보건대, 과학은 신의 의인화(anthropomorphism=개인화)에 매달리는 조잡한 종교적 충동을 막아주고, 동시에 생명의 뿌리에 닿는 종교적 영성화 과정(spiritualization)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중략]

상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우주신’을 수용하고 과학자들에게 개인화 종교는 사절하고 ‘순수한 영성’ 연구를 추천하였다. 이 ‘우주신’이 약간 조정되어 경직성과 과도한 구체성에 빠지지 않고 자연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나는 ‘우주신’을 신-천국-창공-공기의 뜻을 포괄적으로 함축한 오래된 한국어 ‘한울(하늘)’로 대체 사용하겠다. 이 말은 매우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자리잡고, 어떤 특

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우주신’ 다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신인상호작용을 Hanel-anthropo-nomic interactions (HANI)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만일 사람과 신이 전혀 서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HANI와 같이 상호작용의 초공간을 처음부터 상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렇다면 우리의 우주는 인간들의 것일 뿐이며 신은 아예 존재할 근거마저 사라지는 무신론 세계로, ‘우주신’조차 생각할 이유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우주신’을 상정한다면, 우리는 HANI 라는 초공간을 자동적으로 부닥치게 되고, 그 초공간에 내재하는 것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유기체철학의 화이트헤드 우주론을 만나며, 있을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III. 영의 텐서 초공간 HANI

랜덤 대칭성이 깨어지며 발생한 질서를 언급하였던 걸 상기하면 우리는 카오스[혼돈]와 코스모스[우주(의 질서)]의 관계를 동시에 상정하게 된다. 이 문제의 열역학에 프리고진은 20세기말의 여생을 바쳤다. 프리고진에 의하면, 결정론적 범위를 벗어난 무질서계에서는 에너지를 어떤 문턱 값보다 조금만 더 받으면 카오스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뉴턴역학의 종착역이다. 즉 어떤 위상공간에서 서로 근접한 두 점으로 이루어진 동력학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서로 멀어지며 그 정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폭되는 불안정한 카오스로 옮겨가고, 이렇게 전개된 확산 현상은 비가역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으며, 시간적

대칭성은 사라지고 엔트로피는 증가일로로 향하게 마련이다.[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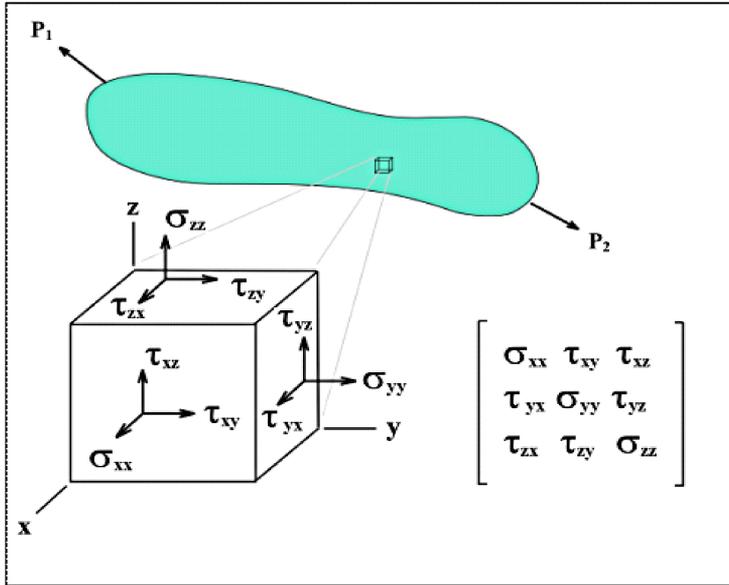
[퀴크의 창시자 겔만은 엔트로피가 인간의 미시적인 무지의 정도를 단순히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옳지 않다. 즉 관찰이 영성하여 엔트로피가 나타난다고 하면, 맥스웰의 악령(demon)처럼 완벽하게 정보를 가지면 모든 것이 시간 대칭성으로 가역적이라는 엉뚱한 모순에 이르고 만다.]

이렇게 단순한 고전적 동력학계에서도 비가역적 시간의 화살이 나타나고 카오스 현상을 거치는 것이, 한편 또다시 새로운 안정계(cosmos)로 옮겨간다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진화 현상도 이렇게 설명한다지만,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다체는 물론이고 3체[3-body]문제도 풀 수 없는 동력학의 한계성은 20세기 초 포앙카레(Poincare)가 지적한바 악기의 공명처럼 울림현상의 개입에 기인한다. 70여 년간 다체문제의 해답을 발산시키는 장애물로 인식되던 포앙카레 울림현상이 실은 카오스 동력학의 중추이며 진화하는 생명의 질서와 결맞음, 그리고 우주 현상까지 설명하는 노른자가 된 셈이다. (양자 파동역학을 창안한 슈뢰딩거는 나치를 피하여 망명을 허락해준 아일랜드에서 17년간 머무른 후 생명은 엔트로피를 저하시킨다는 주제를 펼치게 되는데 프리고진도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What is Life? The Physical Aspect of the Living Cell’ 1943)

이제 신인상호작용의 HANI 텐서 초공간은 카오스와 코스모스 [또는 현세와 천국] 사이에 초공간으로 보이는 한편, HANI 공간은 엔트로피 생성 또는 일반적인 에너지 공간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열(영)-알-울-울’을 뜻하는 한국어 ‘을’[el]을 고려하여 spirit tensor ‘ ε ’라는 심볼을 사용키로 한다.

이는 인간이 탐색할 영의 초공간이며, 따라서 영 텐서(spirit tensor, ϵ)로 링크된 신-인의 HANI 텐서 초공간이 상정된다.

일반화한 영의 텐서는 \mathcal{E}_u^α 로 표기하는 다차원 텐서가 된다. 아래첨자 u 는 다차원 초공간 $u_{wxy\dots}$ 를 나타내며, 다차원 rank $u_{wxy\dots}$ 의 tensor \mathcal{E} 이 된다. 위첨자 α 는 상위주제들의 다면성들인 (superjects = superjacent subjects) $\alpha^{\beta\gamma\delta\dots}$ 를 나타내는 바 $\mathcal{E}_u^\alpha = \mathcal{E}^\alpha_{u_{wxy\dots}}$ 으로 여기서는 단순하게 정의한다. 다차원의 각 성분들 $u_{wxy\dots}$ 는 흔히 보는 xyz 3차원 공간에서 사용되는 벡터들과 유사하며 덧셈 곱셈 등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여기서 P1 and P2 는 벡터이며 방향이 정해지고, 크기는 x, y, z 성분들로 잘 정의되는데 반하여, 국부적으로 보인 텐서들

은 행렬 성분과 확장도에 나타난다.]

영(\mathcal{E})의 대수학은 신인초공간 대수학 (즉 \mathcal{E} 의 Algebra라 칭할 수도 있겠다)이며 일반적 텐서 개념이 적용될 것이며, 크기와 방향이 분명한 벡터와는 달리 \mathcal{E} 는 텐서이므로 노출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비인격적이고, 어느 특정한 곳으로 투사되지도 않아서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 텐서는 곱셈이 되며, 그 표현은 텐서의 정의와 다르지 않으니,

$$\mathcal{E}^{\alpha}_{\ u} \ \times \ \mathcal{E}^{\alpha}_{\ v} \ \times \ \mathcal{E}^{\alpha}_{\ x} \ \times \ \mathcal{E}^{\alpha}_{\ y\dots} = \mathcal{E}^{\alpha}_{\ uvxy\dots}, \quad (1)$$

그 자체는 원래 노출되지 않은 불가지의 내적 텐서 상태, 즉 접근불가 상태이다. 물리에서 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텐서는 등방대칭의 상태로 ('isotropically symmetric state') 특정방향의 성향이 없다.

한편, 노출되지 않은 불가지의 내적 텐서 상태이지만 어떤 \mathbf{u} 벡터로 투사하면 그 투사 값만을 보여주는, 즉 벡터들의 내적 inner product처럼 노출된 내적 값만은 보여질 수 있다.

$$\mathcal{E}^{\alpha}_{\ uv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 \mathcal{E}_u^{\alpha} = \mathcal{E}_{ui}^{\alpha} . \quad (2)$$

(\mathbf{u}_i 는 i -번째 상관하는 대상만 뜻함) \mathcal{E} 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모든 성분들을 총칭하여 $\mathcal{E}^{\alpha}_{\ vxy\dots}$ 으로서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그런데 여기 식(2)에서 벡터 \mathbf{u} 는 $\mathcal{E}^{\alpha}_{\ uvxy\dots} \bullet \mathbf{u}$ 를 통하여 대칭성을 깨고 \mathbf{u} 투사(u-projection)를 통하여 'u' 성분 값인 $\mathcal{E} \mathcal{E}_u^{\alpha} = \mathcal{E}_{ui}^{\alpha}$

α 를 노출시킨 것이다. 이러한 대칭성의 파괴효과는 HANI 텐서 초공간 경계 내부의 숨은 차원에서 방향성, 경향, 특정 시각 등을 꺼내 보인 것이다.

일례로서 성분 \mathbf{u} 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매우 좋다, 좋다, 싫다’ 등의 시각을 각 사람 1, 2, 3 인이 $\mathbf{u}_1, \mathbf{u}_2, \mathbf{u}_3$ 라는 제각각의 의견으로 내보인 것이 된다. 노출된 값들은 그 상관성의 긴 밀도에 따라 $\mathcal{E}_{u1}^\alpha > \mathcal{E}_{u2}^\alpha > \mathcal{E}_{u3}^\alpha$, $\mathcal{E}_x^\alpha < \mathcal{E}_y^\alpha$, and $\mathcal{E}_x^\beta > \mathcal{E}_y^\beta$ 등등의 부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내부로의 투사과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원초적(일례 ruach) 상태에서 어떤 영적 교감 후 영적 피드백이 역으로 일어나서 후험상태 \mathcal{E}_u^α 로 이행하거나, 다발적인 영적 교감들을 경험한 후 다양한 \mathcal{E}_u^α 들이 누적되어 급격히 혹은 점차적으로 원초적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성불한다, 열반이다, 무아이다 등을 일컬음과 비교될 것이다.

$$\sum \mathcal{E}_{ui}^\alpha = \varepsilon \mathcal{E}_u^\alpha \implies \mathcal{E}_u^\alpha \quad [3]$$

여기서 전치계수들은 적절히 규격화한 걸로 보며 $\varepsilon \implies 1$, 그리고 $\sum \mathcal{E}_{ui}^\alpha = \mathcal{E}_{u1}^\alpha + \mathcal{E}_{u2}^\alpha + \mathcal{E}_{u3}^\alpha \dots$ 이다.

IV. HANI 초공간에서 WHITEHEAD 공간의 발현

화이트헤드는 저서 ‘과정과 실재(=PR)’ 제2장에서 유기체철학

에 관련된 중심 개념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였다:

세계를 이루는 최종적 실제 사물들을 현실적 존재(Actual entities: AE)-혹은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s)-로 이름하였다.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AE)이며, 텅빈 먼 우주공간의 어떤 사물들도 현실적 존재이다. 사물의 중요성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사물들은 모두 같은 지평에 있다. ‘실체(substance)’라는 관념은 ‘AE’로 변환되었다. 존재론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실적 존재 없이는 이성도 없다.

곧 분명해지겠지만, ‘현실적 존재’는 HANI, $\mathcal{E}^{\alpha}_{uvxy\dots}$, 초공간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mathbf{u} 벡터성분으로 투사되어 생성된 벡터공간에 존재한다. 이것이 화이트헤드 벡터공간이 된다. [지금부터 HANI 텐서 정의들과 간단한 설명들을 군데군데 부가하며 괄호로 처리하겠다.] PR, 19쪽에는 다음처럼 계속된다: 모든 AE 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v} = \mathcal{E}\mathcal{E}_v^{\alpha}$,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x} = \mathcal{E}\mathcal{E}_x^{\alpha}$...). 어떤 분석 모드로는 다른 분석 모드보다 성분들이 더욱 추상적일 수 있다. 어떤 AE의 분석이 ‘파악’된 것이란 AE의 자연적 본성 속의 가장 구체적인 성분들을 내보이는 분석 모드를 일컫음이다. (이는 고유치를 밝혀내는 소위 대각화법[diagonalization process]이라는 수학적 방법과 동등하다.) 이러한 분석모드는 탐사중인 AE가 ‘분할’(division)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상기 대각화법에 출현하는 고유벡터(eigen vectors)들이 된다: $\mathbf{u}, \mathbf{v}, \mathbf{x}, \mathbf{y} \dots$)

‘파악’과정은 AE의 일반특성들을 그대로 재생한다. 그것은 바깥세상으로 지시되며, 그런 의미로 벡터특성(vector character)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감성, 목표, 평가, 원인 등을 포함한다. [PR, 19쪽] 여기서 화이트헤드 스스로 ‘vector character’란

말을 하는 것이 경이롭다. 당연히 벡터는 외향적인 반면, 원래 HANI 공간은 내성적 공간인 텐서($\mathcal{E}^{\alpha}_{uvxy\dots}$)로서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 ('eternal objects: EO')에 해당될 것이다. 영원한 객체(EO)는 AE가 되는 과정으로 '진입'(ingression)하기 위한 잠재성의 형태로만 기술될 수 있다.[PR, 23쪽] 이는 바꿔 말하면 대각화법 과정(diagonalization process)을 의미하며, 바로 파악들의 합생으로 정의된다.

화이트헤드의 설명은 계속된다[PR, 20쪽]: 현실적 존재들은 제각기 서로의 '파악'을 통하여 서로를 포함한다.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 \mathcal{E}_{ui}^{\alpha}$,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 \mathcal{E}_{uj}^{\alpha}$, $\mathcal{E}^{\alpha}_{uv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 \mathcal{E}_{uk}^{\alpha}$..., 즉 여기서 개인들인 $i, j, k \dots = 1, 2, 3, \dots$ 들이 벡터의 하나인 \mathbf{u} 축상의 공유영역에서 서로 교류한다) 이렇게 AE들은 실제적, 개별적, 특정성들을 공유하면서 '함께'(togetherness)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AE 간의 '함께'라는 특정 사실들을 결합체[링크](nexus)라고 부른다. 결합링크는 식 (3)의 $\sum \mathcal{E}_{ui}^{\alpha} = \mathcal{E}_{u1}^{\alpha} + \mathcal{E}_{u2}^{\alpha} + \mathcal{E}_{u3}^{\alpha} \dots$ 으로 표현한다.

상기 내용들이 아래처럼 더욱 상세한 설명의 범주 (Categories of Explanation)로 다시 정리된다.

- (i) 현실세계는 한 과정이며, 그 과정은 현실적 존재(AE)들의 '됨'이다. (이것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벡터공간을 정의한다. 모든 AE들은 과정을 통하여 '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강하게 주장하기를, 현실세계에는 '있음'(being)은 없고 '됨으로'만 있다.)
- (ii) 어떤 현실적 존재의 됬에 있어서, 이접적(결맞음과 아님이 멋대로 혼재)으로 매우 다양한 존재들의-현실적 (벡터

공간, $\mathcal{E}^{\alpha}_{w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그리고 비현실적 (텐서공간, $\mathcal{E}^{\alpha}_{wxy\dots}$) - 잠재적(=비현실 차원) 통일성이 그 현실적 존재의 사실적 통일[화합]을 이룬다. 그렇게 함으로만 현실적 존재는 수많은 잠재성의 사실적인 합생을 이룩한다.

- (iii) …[중략] 하지만 새로운 ‘영원한 객체’란 (나올 수) 없다. (이 의미는 HANI 초공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만져지는’ 벡터 공간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 (iv) …[중략] 다시 말하면, 모든 ‘됨’의 가능성은 ‘있음’의 본성에 속하고 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이다. ((i)처럼 ‘있음being’은 HANI 텐서($\mathcal{E}^{\alpha}_{wxy\dots}$)의 가능성(또는 잠재성)만으로서의 ‘형이상학적 특성’이다.)

화이트헤드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다. [PR, 20쪽]: (철학)은 좀더 구체적인 것에서 좀더 추상적인 것이 나옴을 설명하는 것이다. … 그것은 사실에서 형식(forms)을 탐구하는 것이다. … 사실의 한정성은 형식 때문이다 ; 그러나 개체적 사실들은 창조된 것이다. 그 창조성은 모든 형식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것으로, 형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여러 창조물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창조성’이란 ‘우주들 중 우주’라고 화이트헤드는 선언한다. 그 우주엔 이접적인 다양성 속에 수많은 ‘있음’들로 차있다. (그 이접적인 ‘있음’이 HANI 초공간을 이룬다.) 우주 속에 몇대로 존재하는 것[이접적인 것들]의 그 ‘수많은’이 (변환 과정 후) 하나의 ‘현실적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연결적인 우주-‘함께’의 우주이다. [됨으로의 ‘함께’ 우주는 AE, $\mathcal{E}^{\alpha}_{wxy\dots}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우주로서 이미 벡터공간에 와있다. 이러한 창조성인 ‘됨

으로'는 '새로움(novelty)'으로 다시 활동하며, 결맞지 않음(incoherence)이 '질서를 동반한' 결맞음(coherence)으로 변형된다.] [PR 25쪽]

이상과 같이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의 중심개념들을 HANI 초공간과 1:1의 비교로 분석하였다.** 먼저 화이트헤드 벡터공간과 HANI 초공간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화이트헤드가 벡터공간에 한정하여 전개한 중심개념들은 HANI 초공간으로 신중하게 확대함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암시한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몇 가지의 중심 개념들은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다음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HANI 초공간의 개념에 뿌리를 둔 '심산양자' 문제**로 진입하여 보겠다.

V. RECKONING QUANTA의 사례: 혁명과 임계점 현상

초인간적 활동이 많이 노출되고 대단위 군중들이 참여하는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 즉 시민운동과 혁명운동들이 더욱 유의할 만한 것이며, 이런 경우 신-인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므로, HANI 초공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80년대 정치군인들의 독재를 극복한 거의 무혈의 한국 대중운동을 좋은 검증자료로 택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임계현상의 자료들도 함께 리뷰할 것이다.

사회변화 욕구에 찬 대중에서부터 혁명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대중의 소리는 독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홍보로 가득찬 나라에서는 쉽사리 들리지 않는다. 대중은 대부분 심한 좌절만 느끼고 위축된 환경이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아직 감지되지 않은 사회변화의 열망은 위에서 설명한 $\mathcal{E}^{\alpha}_{uvxy\dots}$, 혹은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상태(EO state of pre-Whitehead vector space) 로 보인다.

예수의 공생애 3년의 당시 환경은Pax Romana 기치 하의 로마제국의 압제와 수탈과 형식에 빠진 구유대교의 울무에 신음하던 유대인들의 해방, 곧 임박한 천국과 Pax Domini에 의한 종말론적 의의 심판에 목마른 민중에 대답하고 일어난 예수를 통한 하늘의 현현이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무혈혁명 과정은 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광주항쟁은 박통의 군사독재세력 하에서 오랫동안 민주화를 염원한 시민들과 철권으로 권력을 틀어쥔 정치군인 ‘politary’(politics-hungry military) 세력과의 마찰에서 비롯하였다. 철권 군부 조종 하의 방송 매체는 광주항쟁을 ‘공산폭력배들’(communist scoundrel)의 난동쯤으로 매도하고 격하시켰다. 로마제국이 ‘강도떼’(bandits)라고 매도한 마카베, 젤릿 등 유대인 항쟁 집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의 ‘강도떼’들은 한국의 1980년대 ‘공산폭력배들’과 같다.

1980년대 캠퍼스 안팎의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젊은이들은 도처의 체포조들을 밤낮으로 피해가며 정치 및 사회 독서동아리, 노동 학습동아리, 탈출 및 노래패 활동들을 대학, 교회, 공장 등지에서 은밀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심멤버들이 사실 혁명의 씨앗들이었다. 그들의 활

동들은 아주 서서히 커가고, 초기 민중들의 교감작용과 반응들도 군부의 철권통제로 인하여 매우 미미하며 그래서 초기 그들의 교감작용들은 매우 느린 시간의 함수였다. 그러면서도 열망함수는 상관성을 갖기 시작하여 시민의 심리는 랜덤 대칭(random symmetry)에서 지향 비대칭(polarized asymmetry)의 확대과정으로 서서히 옮겨간다. 이것은 $\mathcal{E}_{uvxy\dots}^{\alpha} \bullet \mathbf{u} = \mathcal{E}\mathcal{E}_u^{\alpha}$ 상태로 서 이미 벡터작용이 실행된 상태이며 [AE state of full Whitehead vector space.] 시간성을 외연화하지 않은 채 사회변혁의 열망함수를 $\mathcal{E}_u^{\alpha} \bullet \mathbf{u} = \mathcal{E}_{ui}^{\alpha}$ 로 정의하면, 각각의 반응들이 적극적, 소극적, 또는 심지어 부정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중들을 $\mathcal{E}_{ui}^{\alpha} \gg \mathcal{E}_{uj}^{\alpha} \gg \mathcal{E}_{uk}^{\alpha}$ 처럼 나열한다고 보겠다. 그 반응들의 coherence, 즉 상관함수correlation를 생각하면

$$\langle \mathcal{E}_{ui}^{\alpha}(\mathbf{r}_1) \mathcal{E}_{uj}^{\alpha}(\mathbf{r}_2) \rangle = \langle \mathcal{E}_{uij}^{\alpha}(\mathbf{r}_1 - \mathbf{r}_2) \rangle = \mathcal{E}_u^{\alpha} \exp(-\rho r). \quad (4)$$

이는 감쇄정수 ρ 인 지수함수로 감쇄하는 함수이며 $r=0$ 이면 $\exp(-\rho r) = 1$, $r=r_1 - r_2$ 이 상당한 거리이면 $\exp(-\rho r) = 0$.

처음 씨앗들은 소수이고 그 임팩트 $\mathcal{E}_u^{\alpha} \exp(-\rho r)$ 도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지역의 대학들에 한정된 단거리 함수이다. 보통 시민들은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린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함수는 서서히 성장하고, 특정 시점에 갑자기 급성장하는데 학생데모들이 보도되거나 보도 통제된 데모들이 대학주변에서 목도되기도 할 경우 등이다. 가끔 그 소문들은 대도시 밖으로 퍼지고, 그래서 다시 그 함수는 여기저기서 점증하며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한편 학생들이 구속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데모의 혼돈 속에

서 또는 고문 과정에서 죽음까지 발생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핵심멤버들은 스스로 순번을 정해서 투신, 분신자살을 감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전하며, 이렇게 하여 사회전체가 불안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며 압제적 통치도 효과를 잃게 된다.

바야흐로 사회는 종말론적 상황으로 발전하며 시민들은 모두 울 것이 임박함을 느끼게 된다. 무엇이 과연 오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 열망과 소망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임계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혼란 속에서 자기증폭의 길로 나서며 $\sum \mathcal{E}_{ui}^{\alpha} = \kappa \mathcal{E}_u^{\alpha} \implies \mathcal{E}_u^{\alpha}$ 상황으로 치닫고 여기서 개개인이란 표시의 *i*'s들의 두려움들과 개인주의는 증발하고, 피아의 구별과 반감이 없이 민중은 하나로 수렴하며 [$\kappa \Rightarrow 1$], 사회차원의 상관길이 **coherence length** (ρ^{-1} , the inverse of ρ) 는 발산하기 시작하여 전국화 한다. 즉 $\mathcal{E}_u^{\alpha} \exp(-\rho r)$ 은 전국을 망라한 장소들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zero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방방곡곡 한목소리로 외치며, 이젠 아무도 이에 끼어들거나 제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 소리는 HOSANNAH! 나 ‘십자가 처형!’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민중! 민주! 혁명!’을 외친다. 민중의 함성은 전국적으로 포효한다. 그들의 마음은 무한대로 예민해지고 신축적이며 (infinitely susceptible and compressible) 신의 경계면 (HAN interface)까지 잠겨오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계량화한 경우는 없겠지만, 시공간을 통한 측정 파라미터는 $\mathcal{E}_u^{\alpha} \exp(-\rho r)$ 처럼 가능한 대상이 있고, 이로써coherence measure 인 ρ^{-1} 은 측정가능하며, 바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양자철학의 핵심요소인 심산양자(reckoning quanta) $\mathcal{E}_{ui}^{\alpha}(r1)$ 들에 관한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가 될 것이다.

상기 혁명 현상 또는 대중운동은 물리학의 상전이에서의 발

현상과 비교할 만하다[13]: 통계열역학에서 액체와 기체 상태의 상전이 현상은 임계영역을 지날 경우 무한대의 민감도, 무한대의 신축성, 그리고 거시적인 요동들이 갑자기 발현하는 것을 임계현상이라 한다. 일례로 밀폐된 물의 경우 압력이 217기압으로 유지되며 섭씨 374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임계점에 다다르는데, 원래 분자 크기의 미시적 상관길이에서 갑자기 혼돈을 동반한 무한대의 거시적 상관길iero 발현되며 물과 수증기의 경계면이 사라져버리고, 투명하던 물은 우유처럼 탁해지며 무한대로 발산하는 광산란길iero 인하여 빛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물질이 제각각 임계점을 가지며, 철과 같은 자성체, 초전도체, 유전체 등도 임계현상들을 보이며, 각 물질 등은 임계점에서 나름대로 이상과 같은 격렬한 요동의 과정을 겪게 된다.

유니버설한 임계현상의 모델들이 제시되고 실험과 이론이 서로 주고받으며 지난 100년간 발전하여왔고, 1982년 당시 코넬대의 윌슨은 재규격화 군론으로 임계현상의 유니버설 상수들을 정확히 추출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즉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각기 다른 임계점에서 유니버설한 상수로 통일된 함수를 정확히 따르는 임계현상을 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왜 따로 놀던 수많은 분자들이 갑자기 무한대 상관길iero를 가진 거대한 한 덩어리의 요동이 극심한 상관체가 되어버리는 특성이 발현된 것인지는 각각의 분자 특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며, 단지 한 개의 분자 스스로 혹은 소수의 몇 개 분자들이 모인 정도의 상황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현되지도 않는다. 물 분자들의 경우 적어도 백억의 백억 배 이상의 분자들이 갇힌 고압 앰플 정도 크기는 되어야 임계 실험들을 해서 좀 정밀한 임계점의 유니버설 상수들을 추출할 수 있고,

분자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그 정밀도가 개선된다는 거시적
군집현상(collective phenomena)의 다다익선 특징 또한 이채로운
것이다.

전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스탠포드 교수 R. B. 러플린의 최근
저서는 고체물리 대가답게 각종 발현현상(emergent phenomena)
들을 잘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야인
Hall전류 양자현상의 설명은 흥미롭다. 유니버설한 양자홀저항
상수라는 것 역시 집합현상 일종으로 불순물이 있는 시료라 하
여도 무한대로 클수록 더욱 침예한 한 가지의 상수 값을 얻는
발현현상이다. [양자홀상수 자체가 다른 유니버설 상수들, 즉
빛의 속도, 전자의 전하량 및 플랑크상수들만의 비례 값인, 상
수들의 상수라는 기이한 면까지 지니고 있다.]

이제는 상기한 대중운동 혁명과정에서도 유사한 특성들이 있
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래알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사라지고, 긴 좌절의 늪을 지나온 두려움도 사라지며,
사회적 상관길이 correlation length (ρ^{-1}) $\Rightarrow \infty$ 가 무한대로 발
산하였던 것을 상기한다. 위와 같은 임계현상은 닫힌 계에서는
가역적이기도 하지만 혁명과정은 독특하게 비가역적인 성향을
가짐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중혁명과정이 유사임계현상을 나타내는 것, 변혁 열망을
지향하는 상관성이 무한대로 발산함과 동시에 그 열망 함수가
수치화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점점 침예하게 하나로 명료
하게 수렴하는 경향도 영락없는 발현현상이다. 더구나 이렇게
수많은 인간 집합의 영적 교감활동이 통일된 하나로 침예화하
는 사실 자체는 신인초공간(HANI hyperspace)의 한 예가 틀림없
다고 확신하게 된다.

참고문헌

1. A. Einstein, "Die Quanten Theorie der Strahlung", Phys. Leit. 18, 121, 1917.
2. A. Einstein, Annalen der Physik (Leipzig) 17, 132, 1905.
3. T.H. Maiman, "Stimulated Optical Radiation in Ruby Lasers", Nature 187, 493, 1960.
4. F. Capra, *The Tao of Physics*, Bantam Books, N.Y., 1975.
5.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N.Y., 1978. [Also quoted as PR]; [Korean Tranlation by Y. H. Oh, 1991.]
6.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26; [Korean Tranlation (rev) by Y. H. Oh, 2008.]
7. J. Polkinghorne, *Quantum Physics and Theology*, Yale Univ. Press, New Haven & London, 2007.
8. S.R. Hameroff, and R. Penrose, "Orchestrated reduction of quantum coherence in brain microtubules: A model for consciousness", *Toward a Science of Consciousness*, S.R. Hameroff, A. Kaszniak and A.C. Scott (eds.), MIT Press, Cambridge, MA., 1996. A. Shimony, "On mentality, quantummechanics and the actualization of potentialities", pp. 144-160, in Penrose R (with A Shimony, N Cartwright, S Hawking) *The Large, the Small and the Human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97).
9. A. Einstein, "Religion and Science", New York Times Magazine, Nov. 9, 1930.
10. Einstein's address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May 19, 1939; published in 'Out of My Later Years (1950)'
11. I. Prigogine and I. Stengers, *Order out of Chaos*, Bantam Books, N.Y., 1984.
12. I. Prigogine, *The End of Certainty*, The Free Press, N.Y.,1997 Swans Commentary by Ted Dace, 10, 2008.
13. O. Kwon, "Revolution and Critical Phenomena", Science, Philosophy and Culture, 2, Seoul, Korea, 1992; Hanelmom, 1, N.Y.,1982.
14. R. B. Laughlin, *A Different Universe*, Basic Books, N.Y., 2005.

[Abstract]

RECKONING QUANTUM PHILOSOPHY [RQP]

Kwon, O' Dae (Pohang Univ., of Science & Technology)

The fundamental basis of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 derives from quantum and relativity theories hatc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period. In particular, his process theory was based upon the elementary vibration concept associated with the wave nature. Reviews of quantum theoretical basics then conceived by Einstein and Bohr are related to the structure of Whitehead theories, and a prospect of reckonability, or objective quantization, is probed.

In this article we describe 'reckoning quantum(RQ) philosophy' based upon tensorial properties of theo-anthropo-nomic hyperspace, where theo-anthropo-nomic tensor interactions are assumed to take place while such interactions being spiritual processes are not objectively observable. However since theo-anthropo-nomic interactions are regarded to have tensorial properties, one may expect to turn to RQs of observable vector space available once the unobservable tensors of infinite rank are partially projected onto

an assembled space of observable or tangible vectors.

The theo-anthropo-nomic tensor space for RQs is now compared with Whitehead vector space of actual entities while his eternal objects are regarded as corresponding to the unobservable tensor spac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paces reside in that the RQ space includes ordered-phase emergence as well in addition to the Whiteheadian base of oscillation.

On the other hand, the RQ philosophy may also turn out be objectively quantitative and thus become meaningful in the traditional science domain while Polkinghorne's quantum theology appeared recently remains qualitative. As an example of objective quantization process, revolution and 'scientific' critical phenomena are considered.

Key words : theo-anthropo-nomic tensor, reckonability, reckoning quantum, Whitehead

<단위 행태>unit attitude :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적 응용 개념 연구

정 강 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한글요약】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 구상에 있어 그 기초 핵심 개념으로서 쓰일 수 있는 <단위 행태>unit attitude에 대한 고찰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글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 행태>는 인간 사회의 양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사회학적 지평에서 기본 단위 개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 사회를 파악함에 있어 <사회>society라는 인류 공동체의 활동들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학적 지평의 원자적 단위를 나는 <단위 행태>unit attitude라고 부를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가 형이상학적 지평이라는 존재론의 원자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제시하는 <단위 행태>는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사태를 그 기본 열개로 이미 깔고서 인간 사회활동을 고찰하는 사회학의 지평에서 쓰일 수 있도록 마련해 본 창의적인 응용 개념에 속한다. 이른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에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덧입혔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행태가 연속체를 이루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형성하는 사태를 나는 <실재적 개인>real individuality이라고 부른다. 나 자신이 제시하는 <단위 행태>는 사회학에서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핵심 용어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사회학 연구들은 존재론과 우주론이라는 형이상학의 지평에까지 치밀하게 고찰되지는 못한 채로 정초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야흐로 화이트헤드의 과정 형이상학에 기반한 채로 이를 새롭게 창조적으로 응용해보려는 <새로운 사회학>에 대한 그림들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창조적 문명을 열어가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제어】 화이트헤드, 새로운 사회학, 단위행태, 미드, 문명

투고일 : 2008년 11월 12일 심사일 : 2008년 12월 07일

“모든 인간에게는 전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자기만의 공간, 친밀한 공간이 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제1장 들어가며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 구상에 있어 그 핵심 개념으로서 쓰일 수 있는 <단위 행태>unit attitude에 대한 고찰을 연구중심으로서 담고 있다. 이것은 화이트헤드 철학에 대한 1차적 연구가 아니라 화이트헤드 철학사상의 성과들을 은연중에라도 깔고서 그러한 철학의 지평을 넘어 사회학의 지평에서 새롭게 응용해보려는 2차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이다.

이미 알다시피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형이상학으로서 그것은 다른 여러 분과 학문들에 대해서도 그 궁극적인 사유의 기초로서 놓여질 수 있는 탁월한 세계 이해에 속한다. 이를 테면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은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 꽃 핀, 이제는 잘 알려져 있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응용 사례에 해당한다. 물론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통한 새로운 사회학 수립 역시 당연히 본 논문의 짧은 글 한 편으로 마감될 일도 아니다. 단지 이 글에서는 새로운 사회학 구상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인 <단위 행태>라는 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스케치하여 제시해보려는 것뿐이다.

나 자신이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단위 행태>는 기존 사

회학에서도 논쟁적인 지점인 <구조>와 <행위>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일뿐더러, 인간 사회의 양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사회학적 지평의 기초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와 개인이 화이트헤드 철학을 바탕으로 깔 경우 어떠한 구도를 지닐 수 있으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을 동원하여 피력할 것이다. 이미 철학에서부터 그렇듯이 어차피 모든 학문들은 정합적인 상상력과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창조적이고도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꽃피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모든 이론이 그 <설명력>과 그에 따른 충분한 적용가능의 <실용성>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응용이라는 본 논문의 학문적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즉, 나 자신의 글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올곧게 평가되기만 바랄 따름이다.

내가 알기에 화이트헤드 철학을 사회학적 지평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려 새로운 사회학적 체계를 창조하려 했던 시도들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쪽에 속하는 학문적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완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구도의 작업을 펼쳤던 사람이 있긴 했었다. 그가 바로 사회학 진영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학파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허버트 미드(G. H. Mead)다. 물론 그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끌어다가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미드의 사회학에 녹아 있는 전제로서의 철학적 구상은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매우 흡사하며 둘은 서로 배리되지 않는다. 이점은 미드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바다.¹⁾ 일반적으로 미드는 존 듀이(J. Dewey)와 윌리

엄 제임스(W. James)와 같은 부류의 미국 실용주의 진영과 맥을 같이 하는 사회학자 혹은 사회심리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지만, 화이트헤드가 미드의 생애 말년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정작 현재까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어떻든 화이트헤드 철학의 영향을 입은 미드에 대한 언급도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

-
- 1) 기존의 사회학 이론들 중에서도 특히 미드의 사회학에 전제된 형이상학적 구도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걸로 보인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학계에 그러한 평가가 있다. 오랫동안 미드를 연구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하랄트 벤첼은 말하길, 화이트헤드는 미드의 실용주의를 위해서 근거가 되는 철학이요 미드의 척도를 세웠다고 평가할 정도다(Harald Wenzel, 안정오 옮김, 『미드』[서울: 인간사랑 1999], p.148. 참조). 알고 보니 여기에는 이미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둘은 거의 동시대인이었는데, 미드는 하버드에서 철학자 화이트헤드와 함께 1926년에 열린 제6차 국제철학회의의 「Physics and Metaphysic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blem of Time」라는 분과에 참석하게 된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기고문 「The objective Reality of perspectives」을 자기 사색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여기서 그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그가 스스로 제안한 실용주의적이고도 자연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이러한 구상의 공통적인 기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같은 책, p.157). 물론 화이트헤드가 말한 영원한 객체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자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선호한 미드와는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 역시 있긴 하지만(같은 책, p.159), 그래도 거의 흡사한 것만은 사실이다. 미드 사회학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언급할 것이다. 이외에 미드와 화이트헤드를 관련시켜 고찰한 글로는 Chang, Yen-Ling. "The Problem of Emergence: Mead and Whitehead", in *Graduate Journal of Philosophy, Kinesis* 2(1970), pp.69-80. ; David L. Miller, *George Herbert Mead, Self, Language and the World*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3) ; Gary Alan Cook, "Whitehead's Influence on the Thought of G. H. Mead", in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anders Peirce Society*, 15(1979), pp.107-131. 참조.

인 본 논문의 전략은 미드 사회학의 몇 가지 개념들과 견주어 그저 참고할 뿐이지, 미드의 사회학으로 귀결시키려는 작업 또한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주길 바란다. 본 논문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화이트헤드의 철학 체계가 사회학적 지평에서도 새롭게 응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단위 행태>에 대한 고찰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을 따름이다.

제2장 사회학과 형이상학

1. 사회학 이론의 한계

철학은 인간 경험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 추상 관념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세계를 해석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철학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사유의 베이스에 자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의 학문적 역사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뒤늦게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발흥한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는 철학이라는 학문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것이고 하겠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society란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합을 의미하는 정태적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관계적이고도 역동적인 집합체이다. 게다가 인간 사회는 단순 물질의 사회나 동식물의 사회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의 모습들을 보여줄 만큼 매순간마다 예측불능의 우발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빈번하게 일

어나는 창발적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학>Sociology이라는 학문적 명칭은 오귀스트 콩트(August Comte)에서 비롯하였다. 당시 19세기 초 근대 자연과학의 힘과 영향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었던 터라 학문적 진영에서도 과학적 탐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드높았던 때였다. 이러한 차에 콩트는 다른 학문의 탐구 영역에 비해 사회를 탐구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방법이 제대로 모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 대한 과학>이 가능하다고 봤었다. 본래 콩트가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썼던 용어도 <사회에 관한 물리과학>이었다고 한다.²⁾ 콩트는 근대 합리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한 사상가였다. 즉, 콩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펼치고자 했던 사회학이라는 학문 영역도 근대에서 발흥한 과학과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학은 과학법칙처럼 보편타당한 이론이 가능한 것일까? 사실 오늘날 콩트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인과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에게서 궁극적 사물은 현실적 존재다. 그것은 여건에 제약은 받을지언정 현실적 존재의 <결단>decision 그 자체만큼은 합생의 내적 사실에서 비롯된다. 실상 존재론적으로 볼 때, 사회학의 근원적 딜레마도 바로 여기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결단>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비합리주의적 지점인 것이다. 특히나 고등한

2) Anthony Giddens, 김미숙 외 6명 옮김,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p.638.

존재인 인간의 결단은 그 경험의 풍부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 예측불허일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우리가 개미의 일생과 사회와 인간의 삶과 사회를 서로 비교·관찰해본다면 그 단조로움과 복잡함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이론적 범주 또한 결코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 없고 화이트헤드가 말한 형이상학의 한계처럼 한시적일뿐더러 기껏해야 시대적 정황에 따른 최선의 이론이 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체로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은 사회학 이론이 사회를 설명하는 보편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현대의 사회학 이론들은 대부분이 광범위한 시각에 따른 보다 느슨한 틀로서의 이론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은 정합적인 설명력과 사회학적 분석이 적용되는 그 실용적 지평에서 이론의 정당성 여부가 가늠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사회학 방법론³⁾

철학이 체계화를 위해서 수집의 단계에서 시작하듯(MT 2/14) 사회학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지평에 곧잘 나타나는 저마다의 행위들을 놓고서 이를 수집·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간의 표본과 측정을 통해 일반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obert K. Merton)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들에 관한 관찰된 제일성들을 요약한 독립된 하나의 명제”를 <경험적 일반화>empirical generalization라

3) 사회학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따로 긴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한정된 지면상의 이유로 간략하게만 언급했을 뿐임을 밝혀둔다.

고 규정하였다.⁴⁾ 즉, 경험적 일반화는 적어도 관찰과 수집 혹은 측정의 단계를 거쳐서 나온 명제들인 것이다. 사회학 이론은 바로 이러한 경험적 일반화에 대한 명제들을 배열하고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축조된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 연역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적 지평에 해석을 적용시켜 그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실 이상은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에서 밝혔던 유명한 비행기의 진술과도 그 패턴이 흡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학 방법론에 있어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학의 방법론이 <경험적 일반화>에서 곧바로 추상된 채로 사회학 이론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다 더 깊숙한 <철학적 일반화>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즉, 이것은 사회학 방법론도 결국은 <형이상학적 일반성>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형이상학적 논의라는 담금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형이상학은 바로 모든 일반성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지평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발견에 대한 일반성을 구하는 기술은 세계에 대한 일반성으로서의 <우주론>cosmology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

4)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rev. and enlarged, Glenco, IL: The Free Press, 1957), p.95. 참고로 사회학에 있어 머튼은 <중범위 이론>theories of the middle range으로 유명했던 사회학자다. 그는 사회학에 있어 경험적 발견이 어떠한 체계화를 통해 사회학 이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를 모색했던 사회학자였다. 머튼에 대한 중요 논문은 앞서 말한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의 연속 판본에 거의 다 들어 있으며, 머튼 사회학에 관한 빼어난 개관으로는 Piort Sztompks, Robert K. Merton, *An Intellectual Profile* (New York: St. Martin's, 1986) ; Charles Crothers, Robert K. Merton (London : Tavistock, 1981) 참조.

은 결국 형이상학적 논의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모든 언명은 필연적으로 그 어떤 형이상학적 지평과 관련되어 있다’는 굵힐 수 없는 이 엄연한 사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다. 사회학에서조차도 형이상학의 제1원리들은 결코 예증되지 않는 법이 없다(PR 4/52). 우리가 직접적 경험의 사태를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사태에 대한 이해가 그 사태 자체를 넘어서, 그것과 동시적인 것에 그것의 과거에, 그것의 미래에, 그리고 그것의 한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다(PR 14/68). 그럴 경우 사회학은 특수 분과로서의 개별 지점들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지평과도 맞물려 있기에 올바른 형이상학에 기반한 사회학을 구축해야 보다 온전하고 정합적인 사회학의 정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들은 바로 이 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대체로 기존 사회학은 형이상학적 담금질 혹은 형이상학에 대한 반성 없이 곧바로 실증적 지평에서 축조된 이론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기존 사회학 이론들이 대체로 그 사회학 방법론에서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철학에는 <철학적 상상력>이 동원되듯이 사회학 또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동원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 날카로워진 합리적 해석은 경험적·실용적 지평에서 그 정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때 검증된 정당성은 <설명력>을 보다 더 확보케 하고, 그러한 이론에 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요인이 됨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범주가 언제나 자명한 것에 대한 독단적 진술이 아니라 궁극적 일반성에 대한 시론적 정식화에 불과한 것처럼(PR 8/58), 사회학의 범주 또한

결코 이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다. 모든 이론들은 그 이론 안에 부지불식간에 정초된 형이상학의 운명에 제약되어 있다.

제3장 <단위 행태>에 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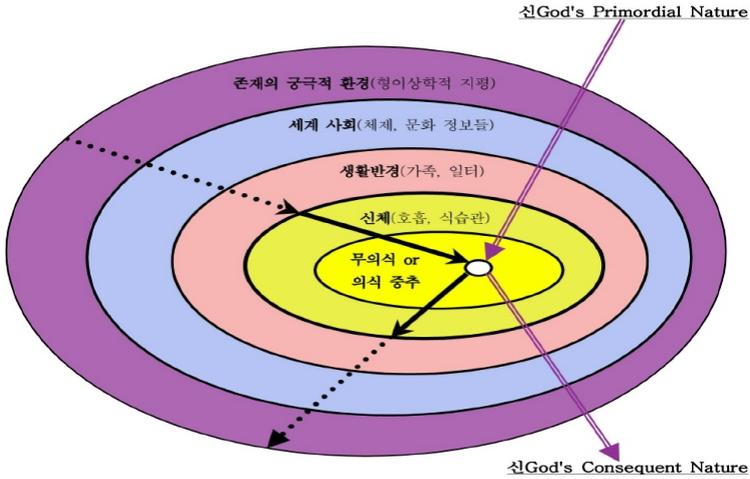
1. <몸학>Momics에서 보는 관계 자체로서의 몸(Mom) 이해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 구상은 우선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는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보면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결국은 “관계성의 구체적 사실”(PR 22/79)이라는 <과약>prehensions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관계성은 화이트헤드 체계에서 존재를 보는 핵심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관계>라는 것은 존재라는 실체가 있고서 작동되는 존재의 부차적인 행보나 특징이 아니라 이미 관계 자체가 모든 존재론적 지평에 적용되는 존재론적 특질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가 보는 인간 이해 역시 예외 없이 관계적 사태로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사회>에 속한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몸을 자연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의 친밀한 한 부분으로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몸 그림을 구상해볼 수 있겠다.

[그림1]

※ <몸학>Momics : 내 몸의 단면도

"천체 우주와 맺는 모든 관계 자체가 내 몸(Mom)이다"



○는 수렴점이자 발산점인 몸센터(Mom-Center), 진아(眞我, 진정한 주체)
 화살표는 에너지 수렴과 발산의 흐름이다,는 간접 영향권, —————는 직접 영향권

그림1에서 보듯이 이 같은 <몸>Mom⁵ 이해에서 볼 경우 “이

- 5) 여기서 나 자신이 <몸>을 표기할 때 그냥 ‘Mom’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선 신체까지를 자신의 몸과 연관시키곤 하지만 사실 <신체>와 <몸>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체는 몸의 물리적인 측면인 ‘body’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몸은 정신과 물질적 차원이 모두 통전된 유기적 관계 상태로서의 그냥 <몸>일 뿐이다. 이러한 몸 개념은 이원론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패러다임에 기초된 인간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오히려 우리네 동양권 문화의 몸 이해에 가깝다.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몸>은 직접적 신체마저도 넘어서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우주의 끝까지 맞닿아 있는 <관계체>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달리 ‘Mom’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기존 사상가들 가운데 도올 김용옥의 경우도 본인과 거의 흡사한 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는 인간을 <호모 모미엔스>

세계는 내 몸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나 자신이 보는 <몸>이란 결국은 수렴점이자 발산점으로서의 중추 핵심과 관계 맺는 모든 관계들의 <관계연합체>이다. 즉, 화이트헤드 철학의 구도에서 볼 경우, 신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모든 것들과 맺는 그 관계 자체가 나의 <몸>Mom이라는 얘기다. 이는 총체적 관계망에 놓여 있는 존재론적 사태를 고려한다면 세상의 모든 만 가지 문제들 역시 결국은 <몸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며 어디까지나 <몸의 문제>로서 귀결된다는 이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 자신이 새롭게 구상하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나는 <몸학>Momics(혹은 Momlogy)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몸학>은 본 논문의 1차적 연구 포커스는 아니며 오히려 이를 훨씬 넘어서는 주제이기에 여기선 부득이 지면상 약간만 언급하고자 한다. 나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몸학은 화이트헤드의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그 기본으로 깔고서 몸의 현실과 관련하여 응용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통합적 성격의 연구 분야에 해당한다.

1) 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은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다(관계의 범주가 성질의 범주보다 우위에 있음).

2) 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은 ‘정신적 극’과 ‘물리적 극’이라는 양극적 성격을 함께 지니며, 단지 정도의 차이로서만 그 지배적 특성으로 나뉘볼 뿐이다.

3) 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은 ‘타자원인성’과 ‘자기원인성’이라는 두 가지 원인성을 기본적으로 함께 지니고 있다.

Homo Momiens라고까지 부른다(김용옥, 『아름다움과 추함』[서울: 통나무, 1996], pp.53-63. 참조).

4)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지닌 신은 시간적인 현실 세계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는, 비시간적인 현실적 존재이다.

아마도 이런 애긴 화이트헤드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알다시피 화이트헤드에게선, 인간을 비롯하여 “존속하는 모든 실재적 사물은 사회이지 현실적 계기가 아니다.”(AI 204/321). “결론은, 계기들로 된 인간의 생애에 편재해 있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자연의 일반적 통일성의 내부에 있는 특수한 통일성의 가닥에 대한 인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AI 187/297)인데, 그럴 경우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몸 이해와 구도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내 몸의 사태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앞의 ‘그림1’과도 관련).

내 몸(Mom)을 구성하는 관계들의 5가지 유형	주요 해당사항들	관련 학문분야
1. 생물학적 신체와의 관계	호흡, 음식, 자세, 신체적 움직임, 생물학적 신체와 자연적·문명적 환경과의 관계 등등	의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등
2. 생활반경에서의 관계	가족(부부/부모/형제/자녀/..), 친구, 학교, 직장, 여가 등등 주로 일상적 생활의 여러 대인관계들	심리학, 경영학 등등
3. 세계사회와의 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세계 체제와의 관계 (주로 교육을 비롯한 자신의 정보습득 경로와 관련)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등

4. 형이상학과 의 관계	세계와 존재 이해의 가장 심층적인 기초 관점 (주로 자기 체험과 정보습 득을 통해 형성)	철학
5. 신과의 관 계	내 삶의 건강한 지혜와 힘의 무한한 매개가 되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와 의 관계	종교, 신학

우리는 흔히 내 몸이 있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는 “관계 자체가 몸”인 것이다. 이러한 몸을 구성하는 관계들의 유형에는 생물학적 신체와의 관계, 가족을 비롯한 일상적 대인관계, 무의식에게까지 지배되는 세계 사회의 온갖 이념들과의 관계, 형이상학적 지평과의 관계, 비시간적인 존재자와의 관계 등등 온갖 관계들이 매순간순간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내 몸을 구성하는 관계들의 5가지 유형이라는 이 구분은 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개체 인간의 입장에서 굳이 나뉘볼 수 있는 몸 이해에 해당하는데, 1번의 경우는 나의 몸 전체에 있어 물리적 측면과의 관계를, 나머지 2-5번은 내 몸의 정신적 측면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하나의 전일적인 몸 이해에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의 구분은 설명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논리적 기술로서의 구분일 뿐이지 실제적인 구분은 전혀 못된다. 왜냐하면 모든 원자적 존재들은 기본적으로는 <정신성>과 <물질성>을 함께 지닌 것이라는 화이트헤드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단지 정도의 차이로서만 나뉘질 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번 유형의 경우는 단지 물리적 측면이 지배적일 뿐이라는 얘기지 전적으로 물리적 차원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

머지 관계인 2~5번 유형의 관계들도 몸의 정신적 측면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얘가지, 몸 그 자체는 통전적인 결합체로서 몸의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은 언제나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1번 유형인 몸의 물리적 차원 없이 나머지 2~5번 유형인 몸의 정신적 측면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또한 역으로 몸의 정신적 측면은 몸의 물리적 측면에 다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몸 그 자체는 언제나 <상호의존적인 관계들의 결합체>라는 점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몸 이해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사실상 <몸학>의 구도에 따르면 <순수 의식>이란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내 안의 그 어떤 주시자(witness)로서의 관찰자(observer)⁶⁾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물리적 차원에 기반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저 유명한 명제인 ‘경험은 의식이 없어도 전제할 수 있지만, 의식은 경험 없이는 전제할 수 없다’는 통찰 역시 새삼 떠올리게도 해준다. 단지 우리의 의식은 내 몸의 온갖 관계들에 대해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듯 의식은 경험이 고도로 복잡해

6) 위의 그림1에서 내가 말하는 몸센터 혹은 진아(眞我)는 고정된 실체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수렴되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재조정(혹은 재조율)하여 발산하게끔 하는 관계조종으로서의 궁극적 센터이다. 이 같은 진아는 모든 차원의 관계발달이라는 몸수행 정도에 따라 진아 역시 발달 진화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고정된 실체로서의 진아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어쩌면 그 진아는 텅 비어있는 공(空)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매순간 변화하는 관계들의 양상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고정된 무엇이라는 게 없잖은가. 그렇다면 결국 진아는 몸수행이라는 관계조정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상향 혹은 퇴행이라는 그 과정에 서있는 형성도상의 시원적인 관찰자일 뿐이다.

지는 가운데 나중에 꽃 핀 경험의 월계관일 뿐이며, 실제로 우리의 몸은 전체 우주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몸의 총체적 관계들에 대해선 극히 일부분만 자각할 따름인 것이다.

참고로 본인이 말하는 몸학은 <Body Study>로서의 학문이 결코 아니며,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토마스 하나(Thomas Hanna)가 얘기하는 <Somatics>과도 다른 것이다. 그가 말하는 “몸이란 우리 내 면의 직접 체험에 의해 감지되는 의식 있는 신체(body)를 말하고 있다.”⁷⁾ 그래서 나는 차라리 <Momics>라고 쓰고 있는 것뿐이며, 이러한 <몸학>에서 볼 때, 세계 안의 모든 학문 분야들은 궁극적으로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발생된 학문으로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몸학>은 모든 분과 학문들이 내 몸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고 있는지를 위치지어 보여주는, 보다 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학문 연구라 할 수 있겠다. 기회가 되면 몸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2. 인간 사회의 원자적 단위가 되는 <단위 행태>unit at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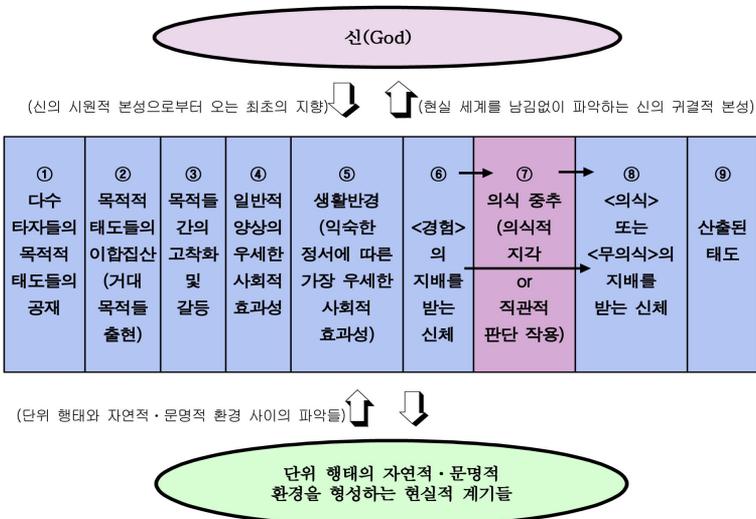
이제부터 나는 앞의 그림1의 새로운 몸 이해와 구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그동안 화이트헤드 철학 진영에서도 그리고 기존 사회학계에서도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었던 바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보이겠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행위와 구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7) Thomas Hanna, *The Body of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1979), p.198.

유용한 실마리를 주는,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초된 사회학적 개념으로서다. 일단 나의 사회학적 구도는 결코 정태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유기적이고도 역동적인 과정상에 놓여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두면서 나 자신이 제시하는 <단위 행태>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그림2 참조).

[그림2]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그림



인간 사회를 파악함에 있어 <사회>society라는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학적 지평의 원자적 단위를 나는 <단위 행태>unit attitude라고 부를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가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원자적 개념이라고 한다

면, 본인이 제시하는 <단위 행태>는 그러한 현실적 존재들이
 합종연횡하는 사태를 기반으로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학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존재에 해당한다. 이른바 화이트
 트헤드의 형이상학의 구도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덧입혔다고
 보면 되겠다. 적어도 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사회는 인
 간이라는 고등 존재를 전제로 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궁극적 실체인 현실적 존재
 가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사태로서, 여기에다가 사회학적 지평
 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시 새롭게 추상화한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의 ‘그림1’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림2’는 관계체로서의 몸(Mom)이라는 ‘그
 림1’에 있어 그 에너지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하나의 단위 흐름
 을 상징해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때 위의 그림2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각의 <단
 위 행태>의 입장에서 볼 경우 이러한 과정은 <다에서 일로의
 과정>이 의식 증추에 수렴되고 의식 증추의 작동은 신체를 통
 해 발산한다는 점, 그리고 단위 행태를 형성하는 이러한 과정
 에는 <자연환경을 이루는 현실적 계기들>과 신의 원초적 본성
 으로부터 비롯하는 최초의 주체적 지향이 단위 행태를 형성하
 고 있는 각 현실적 계기들의 합생 과정 사이마다 매순간 새롭
 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단위 행태의 초기 국면에 해당하는 무수한 타자들의
 목적적 태도들은 인간 경험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은 의식 증추를 향해 수렴되고 또한 의식을 통해 세계 안에 새
 로움의 행태를 발산한다. 물론 인간은 언제나 의식적인 자각의
 상태에만 놓여 있지 않다. 흔히 관찰되듯 인간은 무의식적인

언행들도 분명히 한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의식과 무의식의 중추 센터 모두 수렴과 발산의 경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단위 행태는 적어도 인간의 몸에 개입되는 그 어떤 핵심 명제를 실현하고자 그것이 결국은 사회상에서 일종의 태도attitude로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국 그 어떤 찰나적 순간의 행태 혹은 표현으로서 나타난다. 그러한 단위 행태의 연속화가 그 사람의 일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단위 행태가 연속체를 이루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형성하는 사태를 나는 <실재적 개인>real individuality이라고 부른다.

또한 화이트헤드는 『사고의 양태』Modes of Thought에서 자연 속의 사건들을 대략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이루는 현실적 계기들이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인 동물, 식물, 단세포, 무기적 집합체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미세한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소한 규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다(MT 156-157/180).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자연환경을 이루는 현실적 계기들은 인간 경험에 매순간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일뿐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 행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식량, 재화 또는 자원으로도 기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를 순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행태의 과정에는 당연히 신(God)의 원초적 본성으로부터는 최초의 주체적 지향(Initial subjective aim)이 진입되고 또한 현실 세계의 경험들을 온전히 파악하는 신의 결과적 본성 역시 작용하고 있음도 두말할 나위 없다고 하겠다.

단위 행태라는 결합체는 그 느낌들이 적어도 인간의 특질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적 단위로서, (무의식적 경험의 경로를 제외한다면) 곧 인간의 지성을 가능케 하는 고도의 의식 중추를 이루는 시원적인 지각자가 그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私有化)하여 신체를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에게서는 다수 타자들에 대한 지각 자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통로라기보다 객체를 자기화하는 존재론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⁸⁾

<단위 행태>는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태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학상의 개념으로 탈코트 퍼슨스(T. Parsons)가 그의 기능주의 사회학에서 <단위 행위>unit act라고 체계화하고자 했던—비록 퍼슨스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⁹⁾— 사회학상의 진정한 단위 존재라고 보면 되겠다. 또한 이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가 제시했던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핵심 용어인 <아비투스>habitus¹⁰⁾라는 개념과도 통하는데, 나의 <단위 행태>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8) 문창욱, op. cit., p.208.

9) 사회학의 역사에서 거대한 체계를 쌓아 가장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탈코트 퍼슨스의 기능주의 사회학은 20세기 사회학자들의 그 어느 이론보다 치밀한 체계화를 이룬 학문이었지만, 오늘날 퍼슨스의 기능주의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사회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 그의 헤프닝은 그 자신의 학문적 체계화의 행보가 탄탄한 형이상학을 구축한 채로 사회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사회학에서 시작하여 말년에는 형이상학으로 나아갔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퍼슨스만큼 사회학에 있어 종합화를 이뤘던 사회학자도 없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퍼슨스의 저작으로는 Talcott Parsons, *The Structures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1968)이 가장 유명하다.

10) <아비투스>habitus란 부르디외 사회학의 핵심 개념으로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육체에 배어 있고 실천적 지식행위를 가능케 하는 인식, 평가 및 행동의 틀로 이뤄진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Pierre Bourdieu, 조홍식 역, 『과학의 사회적 사용-과학장의 임상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11. 옴긴이 주 참조).

분석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본래 <아비투스>라는 용어 자체가 라틴어 ‘habitus’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행태, 외부적 모양, 태도, 상황,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인간 사회란 바로 이러한 단위 행태가 매순간 합중연황으로 짜여진 고도의 복잡한 질서를 갖춘 거대한 유기체적 인류 세계인 것이다.

인간 경험의 연속성은 일련의 단위 행태가 일정한 경로를 그리는 연속성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는 그 신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경험의 흐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직 하나의 자아가 중심에 놓여 있을 뿐이다(MT 161/185). 결국 어떤 면에서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는 우리의 우주시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대상화함으로써 반성적 능력마저 가진다고 보는 호모 사피엔스의 현존을 전제로 한 우주 세계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단위 행태는 인간의 무의식-의식 중추를 이루는 <시원적인 지각자>original percipient¹¹⁾가 산출하는 특정의 목적 실현인 한정 특성에 비취 그려내고 있는 일정한 유형의 역사적 경로이다. 그것은 그러한 <시원적인 지각자>를 내포하고 있는 우주의 한 결인 것이다. 이때의 시원적인 지각자는 전체 몸(Mom)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직접적 자기>immediate self에 해당한다.¹²⁾ 어떤 면에서 이 시원적인 지각

11)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합체로서의, 임의의 현실적 존재의 현실 세계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 결합체의 객체화는 그 현실적 존재의 물리적 느낌을 위한 객체적 여건의 완결된 통일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 현실적 존재는 그 결합체에 대한 시원적인 지각자이다.”(PR 230/419).

12) <직접적 자기>를 이루는 현실적 계기가 연속체를 이루면서 존속하는 질서로서의 그 어떤 한정 특성의 경로를 가질 때는 <인격적 동일성>이 형성된다. 물론 이때의 인격적 동일성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며, 파생적인 추상물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에게서는 절대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지속

자는 진정한 몸센터(Mom-Center) 혹은 진정한 주체로서의 진아(眞我)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시원적인 지각자>는 각각의 고유의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공유가 가능할 수 있겠다. 화이트헤드는 말하길, 각 현실 세계는 그 시원적인 지각자로부터 독립해 있는 결합체라고 말한다(PR 230/419).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에서는 그 자신의 신체까지를 고유의 것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다.¹³⁾

단위 행태에 대한 발상과 그 구성적 작업은 나 자신의 창조적 작업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시사적인 근거는 어디까지나 화이트헤드의 언급으로부터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기(self)의 중요성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오는 것은 타자들의 중요성이다. 현실태는 중요성의 자기 향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향유는 하나의 자기의 향유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오는 타자들에 대한 자기 향유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것의 가장 명백한 예는 조금 전의 우리 자신으로 간주되는 현실태들, 지금

하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13) 물론 요즘도 성형을 비롯한 신체 디자인 개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특이한 경우라면 삼(Siam)쌍둥이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때 신체는 공유되어 있지만 두 개의 직접적 자아가 같이 공존하는 사태가 되어버린 경우에 속한다. 이럴 경우 예상컨대 잦은 명령 충돌로 빚어지는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미래에는 시원적인 지각자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나 또는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있을 진화적 변이로 인해 현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의 신체를 가지며 삶을 영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령을 하는 뇌만 따로 분리시켜 사이보그 신체를 원격조종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물론 현재까진 아직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학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은 우리의 직접적인 현재와 그들의 향유를 융합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태들을 우리가 실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각각의 개체적인 현실태 속에서 우주가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생생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향유와 미래로의 변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자신의 자기 향유에 근거하여 중요한 무엇인가가 되는 것으로서의 현실태라는 개념이다.”(MT 117-118/138-139).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이 같은 현실태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자기(self) 개념의 핵심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다. 단위 행태의 그림에서 보듯이 ⑦의 무의식-의식 중추 단계가 일련의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단위 행태의 초기 국면을 ①의 타자들의 태도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이미 발현되고 있는 다수 타자들의 무의식-의식 중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다. 물론이다. 본래 진정한 <단위 자기>unit self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①의 국면 이전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타자들의 무의식-의식 중추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최종 단계는 ⑦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의식-의식 중추 발생까지를 얘기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행태가 다수 타자들의 태도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코 타자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내적인 주체 영역과 타자 영역은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측정불능의 영역이다. 그것은 그나마 외적인 상호 영역을 통해서만이 접근될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에 있지 <속마음>에 있지 않다. 사회학자 미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과학은 관찰 가능한 행위들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적이다. 즉 동적이고 진행 중인 사회과정과 사회행위가 곧 과학적 연구와 분석에서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내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니다.”¹⁴⁾

그렇기에 현재의 사회과학은 인간 내면에서 시작하지 않고 행태주의적으로 접근되어야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인간 내면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저 사람이 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심을 하며 살아가는지는 단박에 알아차리기가 불가능하다. 설령 바로 옆 사람과 부대끼며 6, 70년 평생을 같이 살아 온 노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결국 말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들을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상호 영역에서 타자의 내적 의도에 최대한 접근적으로 들어가 외면에서 파악 가능한 지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태도>attitude라는 국면이다.

이때 나의 사회학이 말하는 <태도>란 용어는 미드가 그 자신의 사회학에서 <정신>mind의 작용이 겉으로 처음 드러난 사태에 해당하는 <태도>라는 개념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것은

14)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C. W. Morris,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p.7. 참조(이하 ‘MSS’로 표기).

우리가 관찰가능한 시원적인 타자의 국면인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용이하지는 않다. 그것은 대개 언어와 몸짓에서 가늠되고 있는 게 보다 일반적인 사례에 속한다. 즉, 일련의 언어와 몸짓은 그 어떤 태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먹살을 잡는 몸짓은 공격하는 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태도는 언어와 몸짓으로 구체화될 때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할 정도로 상호 영역에서 곧잘 파악하기가 용이한 것 역시 아닐테지만, 그렇다고 이를 내면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순 없기에 행위자의 내면이 외면에 해당하는 상호 영역으로 드러나는 출입문 지점의 정도로 이해했으면 하길 바란다. 단위 행태는 바로 <다수 타자들의 태도들에서 그 자신의 태도까지>인 것이다. 그 사람의 일생은 바로 이러한 단위 행태들의 연속체다.

3. 다수의 타자적 태도들이 만들어내는 중층 구조에 대한 분석

단위 행태의 분석에 있어 ①부터 ④까지는 앞의 ‘그림1’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궁극적 환경이라는 형이상학적 지평까지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 사회의 중층 구조 사태에 해당한다. 단위 행태의 ①은 앞의 그림1에서 말한 ‘존재의 궁극적 환경’에 상응될 수 있겠다. 우주의 끝과도 맞닿아 있는 내 몸의 이러한 사태는 장차 의식 중추에 수렴될 통합에 있어 매우 거대하고도 희미한 태고적의 기억 같은 모호한 기반에 속한다.

단위 행태의 초기 국면에서부터 이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다

수 타자들의 무의식-의식 중추로부터 산출된 목적적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세계 전체가 단위 행태의 초기 국면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는 그 자신의 신체가 된다(The World Becomes the Self's Body)”라는 메를르 폰티(Merleau Ponty)의 명제는 여기서 더욱 명확해진다. 단위 행태는 그 초기 국면들에서는 다수 타자들인 전체 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융(C. G. Jung)이 말하는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이라는 것도 신의 원초적 본성으로부터 오는 최초의 지향과 함께 나 자신의 단위 행태에서 볼 경우 ①의 국면에서부터도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자기(self)는 바로 이러한 전체 타자들(Others)로부터 그리고 신(God)으로부터 나름대로 자기화 과정을 향유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현실태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인간 존재는 결국 언제나 GIO(God-I-Others) 지평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즉, 나(I)라는 존재는 결국 GO(God-Others)를 자기화하는 과정적 존재라는 것이다.

단위 행태의 초기 국면들에 해당하는 다수 타자의 태도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목적적 양상들은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는 것들끼리 뭉치거나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충돌하거나 할 것이다. 사회상의 언어와 몸짓이 저마다의 다양한 목적적 함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경우, 세계 안의 단위 행태들은 이로 인한 <이합집산>을 보이면서 거대한 목적적 집단을 형성하는 흐름으로도 나아간다. 이른바 단위 행태들이 서로 비슷한 목적 양상들끼리는 밀착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인류사의 제도화-조직화에 대한 사태들 역시 바로 단위 행태의 무의식의 국면 중 하나인 여기에 뿌리박

고 있다. 물론 의식적 지평에서 이해 타산적으로만 볼 때 인간 사회의 조직화·제도화 성향은 서로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한 능률과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경험은 바로 ‘낯설지 않는 익숙함’이라는 정서에도 기인한다는 얘기다. 비슷한 목적적 태도들의 친화성으로 인해 출현하는 거대 목적은 우리 사회의 회사나 동호회 집단뿐만 아니라 이것은 크게 민족이나 국가 체제 혹은 월러스틴(I. Wallerstein)이 말하는 <세계 체제>the world system¹⁵⁾의 차원까지도 고려에 넣어야

15) <세계 체제>는 월러스틴의 사회학에서 사회변동과정을 분석할 때 분석의 단위로 제시된 대규모의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인 체제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사회를 넘어선 개념으로 그는 이것을 통해 자본주의와 국가 경제 그리고 여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효과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을 뒤집는 내용들이 많아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세계를 분석할 뿐더러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유통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생산양식의 다중성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비판 역시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현재까지는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 치밀한 사회경제구조망과 정치적 이념을 조감하는 이론은 월러스틴 만큼 날카롭고 첨예한 이론 역시 드물다고 여겨진다. 단지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본인에게도 유효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월러스틴에 대해서는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이매뉴얼 월러스틴, 나종일·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 이매뉴얼 월러스틴·G. 아리기·T. K. 홉킨스 [공]지음, 송철순·천지현 [공]옮김, 『반체제운동』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공저, 이수훈 옮김, 『사회과학의 개방 : 사회과학 재구조화에 관한 쾰벤키안 위원회 보고서』 (서울: 당대, 1996) ; 이매뉴얼 월러스틴,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서울: 당대, 1996) ; 이매뉴얼 월러스틴·테렌스 K. 홉킨스 외 지음, 백승욱·김영아 [공]옮김, 『이행의 시대 : 세계체제의 궤적, 1945-2025』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 백영경 옮김, 『유토피스틱스 :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 이매뉴얼 월러스틴, 백승욱 옮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 21세기를 위한 사회과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할 정도로 다양한 것이다. 반대로 끼리끼리 뭉치는 만큼이나 불가피하게 서로 간의 목적들이 어긋날 경우 <경쟁>과 <갈등> 또한 불가피하다. 이합집산의 단계에서는 친화성으로 인한 <고착화>나 마찰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저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뿌리 깊은 상흔들을 서로 지녀가면서 자기(self) 형성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갈등의 가장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사태는 화이트헤드가 말한 현실적 계기들 간의 목적들이 서로 어긋남으로서 빚어지는 사태일 것인데,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볼 경우 갈등의 유발은 세계 안의 무수한 단위 행태들로부터 발현하는 목적적 태도들이 서로 어긋남으로서 빚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갈등이 심한 경우는 신체적 충돌로도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물리적 싸움이 되지만, 이러한 충돌이 거대 목적들 간의 갈등 차원에서 빚어질 때에는 심할 경우 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 그럴 경우 세계 안의 온갖 비극들은 나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몸 깊숙이 그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인류는 카인의 범죄 이후로 어찌면 <태고적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족속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에 있어서도 다수 타자들의 힘의 함수 관계에 따라 우세한 거대 목적 양상들이 더욱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 세력과 이념적 공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태다. 형성 중에 있는 단위 행태에서 볼 때 이러한 양태로 그 자신에게 일반화되어 버린

2001) 참조. 이외에도 다수의 책과 논문들이 있지만, 윌러스틴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저서들은 국내에 거의 출판되어 있다.

사회 구조를 나는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icacy이라고 부른다.¹⁶⁾ 이 같은 다수의 타자적 태도들로부터 기인한 다양한 중층 구조들은 <사회적 효과성>을 형성하면서 결국엔 단위 행태의 무의식-의식 중추에 인과적 효과성의 차원으로 개입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회적 효과성은 쉽사리 생활반경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것이며, 이것은 자아의 의식 중추에까지 비교적 잘 느껴지는 사회흐름일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6월의 대한민국의 월드컵 열기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효과라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 월드컵 열기 같은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뚜렷한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 우리의 의식 속에 종종 떠오르지 않고 침잠된 채로 우리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쉽게 우리 자신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정의 시공간에 고착화된 습성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종종 많다. 여기에는 인류사적 습성으로 인한 것뿐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습성이 그럴 수 있고, 지역적 습성이 그럴 수 있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습성이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개인적 습성으로 내재해 들어와 그 자신의 정신성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박혀버리는 것이다.¹⁷⁾ 이것은 사회학적

16) 이는 미드의 저 유명한 사회학적 용어인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 혹은 <태도 공동체>attitude of community라는 개념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봐도 좋다. 미드 사회학의 <일반화된 타자> 개념에 대해서는 MSS 152-163 참조.

17)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그 자신의 유명한 대표작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와 개신교 윤리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면서, 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깔려 있는, 그 어떤 패턴화된 생활 문화적 습성에 스며든 가치나 이념 혹은 사회를 주도하는 관념들을 추적함으로써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회학자다.

지평에선 <관례> 혹은 <관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안일하게 여김으로서 잠재된 것일 수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머나먼 미지의 것일 수도 있다. 우리네 일상의 의례적인 행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누는 인사의 경우가 그러한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같은 표현들이 실제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에 각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생활이 관례에 따르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곧 지혜는 시작된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관례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문명은 소멸하고 만다. 예리한 지성에서 나온 사회학의 많은 학설들이, 이 기본적인 사회학적 진리를 망각함으로써 와해의 길을 걷고 있다”(AI /163).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닐진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에 곧잘 망각하고 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이 상호공동체를 이룰 때 그 행위들이 고도로 <의례화>됨을 말해주는 징표이기도 하다.¹⁸⁾ 우리의 일상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설명적 해석을 추구하는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8) 물론 화이트헤드 철학을 깔고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회학 진영의 <상호작용 의례>에 대해서는 어빙 고프만의 연구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rving Goffman, *Interaction Ritual : Essay on Face to Face Behavior* (Garden City, NY: Anchor, 1967) 참조.

상당수들은 우리 자신들의 체내에까지 당연한 것들로서 몸에 배여있다. 아마 예컨대 그 자신을 제외한 다수의 타자적 욕망들이 작동된 행태가 직접적 자아의 의식 중추 속에 죄다 지각된다고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다. 화이트헤드에 게서 적어도 의식이란 것 역시 부정의 능력이 아니었던가.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요인들은 그렇지 않은 요인들과 비교한다면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 안에 개입되고 있는 모호한 다수의 타자적 욕망들을 살피본다는 것은 거대한 무의식에 관한 분석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끈질긴 지적 탐색들을 필요로 한다.

합리주의의 모험은 바로 끊임없는 모호함에 대한 최선의 명석 판명함으로의 산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즉,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화해와 통합을 향한 작업과정이기도 하다.

4. 중층 구조에서 생활반경으로

여기서 단위 행태의 물리적 토대는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이전의 현실 세계들이 수렴되어지고 있는 그 자신의 신체를 들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단위 행태의 개념적 토대는 신의 원초적 본성으로부터 비롯하는 최초의 개념적 지향을 포함하여 선행하는 다수 타자들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사회 안의 다양한 관념들 혹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위 행태가 주체로서 기능하기 이전에 이미 강요되고 있는 토대들이다. 이때 이러한 개념적 토대들은 그 나름대로의 물적 자원들도 함께 수반한다. 예컨대 상류층의

특권의식은 고급 외제승용차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처한 대로 주거 환경과 경제적 자원들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계급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즉,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문화적 취향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근원적으로는 타자원인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태에 해당한다.

세계 안에 이미 관례화된 일반적 구조와 습성들은 여지없이 <사회적 효과성>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활문화 양식을 총망라한다. 물론 여기서도 가장 우세한 효과로 작동하는 <사회적 효과성>이 자신에게 보다 더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더욱 말할 나위 없다. 인간의 삶 속에는—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언제나 우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가치나 정서라는 게 있다. 물론 그것은 정신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물리적 토대에 속하는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안에는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있고 거기에 걸맞은 친숙한 생활 패턴으로서의 익숙한 정서가 있다. 다양성의 정도는 관련되고 있는 요인들끼리의 대비의 증대에 비례한다. 보다 광범위한 일반성은 세분화된 다양성들의 보고다. 합리주의의 모험은 바로 이를 <역추적>하는 여행과도 같다. 자아의 형성은 모호한 다수의 타자들로부터 중층구조와 생활반경 그리고 그 자신의 신체를 거치면서 보다 익숙하고도 분명한 뚜렷함으로 점점 이어져 나간다. 의식 중추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한 선명함은 비례할 것이다.

생활반경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대

표적인 것은 내 삶의 <보금자리>와 <일터>일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같은 주변인은 내게 매우 친숙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자들이다. 특히 가족의 영향은 자신의 성장기에 있어 매우 지대한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생활 영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연과 지연 또는 학연을 은연중에라도 따지면서 그에 대한 친밀성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다.

이때 우세한 사회적 흐름들도 생활반경에 들어오면 조금씩 그 의미가 굴절되거나 더욱 고착화된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규범들이나 관습들도 가족과 주변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사회의 일반적 흐름과 달리 많은 굴절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비리나 사회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이거나 자녀 혹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일 때 그 자신에게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단위 행태 안에서 전이되는 벡터에너지의 흐름은 다른 생활반경에 있는 타자들과 매우 다른 에너지 흐름을 가지면서 그 자신에게 개입한다는 의미다. 그럴 경우 결국은 의식-무의식 중추를 거쳐 산출되는 태도 또한 다른 양상을 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물론 역으로 부정비리 척결이라는 우세한 사회적 흐름이 생활반경에 이르러서도 그때까지 형성해놓은 자신의 의로운 성향과 맞물려 같이 편승할 경우라면 그 자신의 <단위 자기>unit-self는 부정비리 척결에 더욱 고취될 확률 역시 높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압도적인 사회 구조 혹은 사회적 일반성의 흐름도 그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생활반경의 굴절 경로를 결코 피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생활반경은 언제나 친숙한 정서에 기인하

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것은 <가장 우세한 사회적 효과성>이 작동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서와 무의식의 차원을 중요시하는 기존 심리학의 대부분은 그 치유 범주 역시 대체로 생활반경에서의 관계 범주를 넘어서진 않는다.

5. 언론매체, 그 정보 습득의 경로에 대하여

여기서 단위 행태에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는 단위 행태의 ①부터 ④까지를 <실체화>시킨 채 주로 ⑤의 생활반경에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가 언급했던 인식 작용에 해당하는 변환의 범주가 문명사적으로 사회학적 지평에 패턴화된 양상으로 적용되어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다면 바로 언론매체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¹⁹⁾ 이들은 다수의 모호한 타자적 태도들을 포함하여 우주 안의 무수한 사건들을 뚜렷하게 실체화시키는 그룹들이

19) 우리들이 세계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보통의 방식은 변환된 물리적 느낌에 의해서다(PR 253/454). 변환의 범주로 인해, 물리적 목적에 포함된 감각여건은 투사자에 의해 한정된 어떤 외적인 초점적 영역 위에 투사되는 것이다(PR 323/560). 이때의 초점적 영역에서 발견되는 한정성은 다양한 현실태들에 대한 다수의 물리적 느낌들을 최종적인 주체 속에 한정시켜 들여놓은 개념적 느낌이다. 특히 고등한 유기체인 인간 존재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환의 범주>가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이다. “변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Thomas E. Hosinski, 장왕식/이경호 역, 『화이트헤드 철학 풀어읽기』(서울: 이문출판사, 2003), pp.251-252. 참조). 이때 인간사회 지평에서 건주어 볼 경우, 언론매체의 기능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뚜렷하게 단순화시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비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다. 언론매체와 그 밖의 불특정 소문인들은 우세한 사회적 양상들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거나 알려주고 있다. 물론 전자는 공식적이기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클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속하는 TV나 인터넷, 신문 또는 출판 등을 이용하여 모호한 다수 타자들의 목적적 태도들을 보다 더 뚜렷하게 실체화시켜 그 자신의 해석들을 공론화하려 한다.

여기서 그 어떤 사회적 양상들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에 의해 함구되거나 심하게 손상·왜곡될 때에는 불특정 소문인의 역할은 비중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유언비어의 양태를 띠면서 언론매체에 의해 함구되거나 왜곡된 정보들과 맞선다. 특히 지난날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런 사례들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5.18광주민중항쟁의 경우는 대표적 사례에 속할 것이다. 5.18 광주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 당시, 보다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은 군사정권의 충실한 시다발이로 전락했던 언론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민중들의 유언비어 형태로 나돌았던 것이다. 참인 명제의 정보일수록 예증되기는 더욱 용이한 것이기에 결국은 이들의 유언비어가 비공식적 성격을 띤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물론 참인 정보가 권력의 물살을 탈 때에는 그 설득적 효과는 배가된다. 오늘날 불특정 소문인들은 특히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의 힘을 많이 빌고 있기에 거의 <네티즌>이 이를 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인쇄 출판 등등은 상호 영역의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공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타자들을 접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커뮤니케이션들의 집약적 매개 통로가 되는 이러한 것

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에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참으로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많은 다수 타자들인 단위 행태들에 대해 끊임없이 올바른 정보로서 자기 안에 수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굴절과 왜곡이 필연적 사태인만큼 그에 대한 극복의 노력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언론이란 결국 자신의 단위 행태에 개입되는 다수 타자들의 태도들을 뚜렷하게 실체화시키는 거대한 굴절 렌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6. 신체에 대하여

나 자신이 말하는 단위 행태는 주관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초기 국면에서는 다수 타자의 태도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가 언급한 <개정된 주관주의적 원리>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와도 맥을 같이 한다. 화이트헤드의 말하는 <개정된 주관주의적 원리>는 근대 철학의 <주관주의적 원리>subjectivist principle와 경험적 여건에 근거한 <객관주의적 원리>objectivist principle에 모두 균형을 주고 있는 그 자신의 이론이다. 만일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 객체적 내용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유아론적 주관주의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PR 152/293). 그렇기에 단위 행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초기 국면에선 사회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중층 구조들의 효과적 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타자적 태도들의 공재는 타자 영역에서 상호 영역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힘의 차원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궁극적 기원은 결코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 없는 다수의 타자 영역에까지 닿아있으며, 이것이 상호 영역을 거쳐 나

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뿐이다. 인간 본질에 대한 기술은 의식이 거의 닿지 않는 광범한 배경의 느낌에까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MT 116/136). 이때 신체는 바로 그러한 외부 세계를 나의 깊숙한 내면에까지 이어주고 있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것을, 보다 광범한 자연의 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복합적 통일체로 정초시킨다. 그러나 그것과 그 밖의 자연과의 경계는 지극히 모호하다. … (중략) …한 인격체 속에 신체와 정신의 통일은 물론이고, 신체와 환경과의 통일도 있는 것이다.”(MT 161/185)

이러한 신체는 내적인 주체 영역과 외적인 상호 영역에 걸쳐 있는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된다. 세계가 무의식/의식 중추로의 수렴에 있어 광범하고도 모호한 기반이라고 한다면 신체는 직접적 자아가 되는 무의식/의식 중추와 가장 직접적이고도 집약적인 영향에 놓여있는 기반이다. 인간의 신체는 저마다의 것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내적인 주체 영역에서 산출한 목적들을 현실화하려는 유용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신체는 새로운 가능태를 불러일으키는 <명제>와 사회상의 언어와 몸짓이라는 <상징>을 가능케 하는 매개적 통로로서의 유기체다. 즉,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표현의 일차적인 장(場)이 되는, 세계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MT 22/37). 이때 신체를 통한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와 <몸짓>은 현대 사회에 있어 상호 영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 사례에 해당한다. 의식 중추에서 시원적인 지각자가 산출한 목적은 그 자신의 신체에 명령을 내

린 후 그 어떤 <태도>attitude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향유되는 느낌의 전이들은 그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굴절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지체 부자유 같은 장애인이나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반인들이 대개 공감하는 상식들조차도 달리 보이고 느껴진다는 얘기다. 그 자신의 신체적 상태가 일반인들과 다를 경우, 이들이 사물을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갭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젠더gender의 문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첨예한 문제적 느낌을 발생시킨다. 똑같이 공항에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받는 상황일 때 남자인 나와 연예인 하리수의 느낌은 매우 이질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7. 무의식의 지평

나의 사회학에서 단위 행태는 화이트헤드 체계에서의 현실적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다. 그 가운데 무의식/의식 중추의 단계는 단위 행태의 전체 행보에서 볼 때 가장 중심에 해당한다. 앞서 말했듯이 몸센터로서의 중심은 고정된 자아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 성장에 따라 발달과 퇴행의 과정에 있는 자아일 뿐이다.

벡터 에너지가 신체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의식 중추 이전의 단계는 무의식적 경험의 단계에 속하며, 그 이후는 의식의 단계에 속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무의식을 연구한다고 할 때 대체로 그 사람 개인 내면의 심리적 문제로 한정하기 십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무의식에 대한 실제상의 연구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과도 맞닿

아 있다. 즉, 내가 속한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대한 연구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다. 사실 프로이트가 발견했던 <외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도 단위 행태에서 볼 때 의식 증추와 신체 이전의 생활반경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무의식의 지평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불과하다. 물론 친화성이 강한 생활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인류사적으로도 뿌리 깊은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거대한 무의식의 스펙트럼에서 볼 때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여전히 국소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이트의 실수는 이 국소적인 사건을 다른 인류사적 사건 해석에까지 전적으로 비약확장시켜버린 데에 있다. 이것이 소위 그의 비판에 가해지는 <범색화(汎色化)의 오류>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와 나는 결코 이분되어 있지 않다. 나 개인에 대한 자아 발견은 곧 세계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 상담은 그 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할 때 가장 올바른 해결점을 찾는 출발이 된다. 그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사실의 무의식적 기반에 속한다.

8. 자연을 포함한 환경과 신체적 느낌

우리는 자연환경을 이루는 현실적 계기들의 영향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직접적 자아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하지만 보통 신체까지를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것들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속한다. 앞서 짚막하게 언급했지만 자연환경을 이루는 현실적 계기들의 종류에는

인간을 제외하면, 동물, 식물, 단세포, 무기적 집합체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미세한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소한 규모의 사
건들을 들 수 있다(MT 156-157/180). 중요한 사실은 신체와 자
연환경은 이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
루는 현실적 계기들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인간의 영향
을 받는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날씨에 대한 신체적
느낌이다. 그 날 하루의 일과가 날씨의 영향에 상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태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
상의 단면 중 하나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경험에 매순간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일 뿐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 행태에 있어
서도 얼마든지 자원, 재화, 식량 등등으로 기능한다는 사실 또
한 간과되어선 안 된다. 바로 이 점에 있어 이러한 오늘날의
자연환경에는 인간이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공하여 만든 2차적
환경인 문명적 환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옷을 입
고 있다. 옷은 우리가 자연에서 추출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문명적 환경에 속한다. 21세기 들어서도 날이 갈수록
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문제는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 현실적 계기들과 그 자신의 신체적 느낌과의 불협화
음에서 비롯한다. <알레르기>Allergie는 이러한 불협화음의 사
례 중 하나다. 신체적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체를 형
성하는 계기들과 주변 환경에 해당하는 계기들과의 조화로운
소통이다. 이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체의 리듬에는 또
다른 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는 전체 세계야말로 나의 몸이라는 인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네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기술 발전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개개의 전문 분야에만 몰입된 <개체적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의 관련 가운데서 개개의 발전들을 타진해나가는 <에코 테크놀로지>라는 사실이다.

9. 신이 소망하는 가능태와 의식 중추의 단계

의식 중추의 단계에서는 신으로부터 오는 가능태에 대한 고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의식 중추의 국면은 단위 행태의 전체 색조를 좌우하는 결단의 순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실적 존재의 최초 위상을 이루는 주체적 지향은 신의 원초적 본성으로부터 비롯한다. 이점은 나의 사회학에서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오는 가능태는 그것이 직접적 자아에 해당하는 고도의 지각자인 현실적 계기에 진입할 경우 최초의 지향을 넘어서 합생에 명제의 술어로서 작동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느낌을 위한 유혹이자 욕구의 영원한 충동이 되는 신의 원초적 본성에 대한 그 주체의 파악으로 인해 개념적 느낌이 발생하고 이것은 다시 물리적 느낌과 통합됨으로서 명제적 느낌이라는 후속 위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화이트헤드안들이라면 익히 잘 알 것이라고 본다. 이때 최초의 지향에 해당하는 개념적 지향의 파생을 개념적 창시라고 할 경우, 신이 느끼는 명제의 술어적 느낌에 대한 새로운 계기의 순응적 느낌이 개념적 창시가 된다고 볼 수 있다.²⁰⁾ <핵심 가능태>란 바로 이때의 직접적인 자아에 진입된 명제의

20) 문창욱, op. cit., p.266.

술어적 느낌에 해당하는 가능태를 의미한다.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가능태는 질서를 향한 가치평가 된 것으로서 세계 안에 있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과거 세계와 결부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그 중 어느 것이 신이 소망하는 가능태인지는 참으로 불분명한 것이다. 이때 인간은 신이 최상으로 평가한 가능태를 거부하고 충분히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희미한 다수 타자들의 태도로부터 그 자신의 의식 중추에 이르기까지의 무수한 감각 자료들은 의식 중추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체를 명령하는 정보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때 의식 중추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합체와 명제를 대비시키는 지성적 느낌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상상적 시연이 가능한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상황 정의>the definition of the situation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이 지점에서 자아는 비로소 성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하나의 행위 노선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10. 흥미로서의 명제와 정보

화이트헤드 철학에서도 명제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응용하고 있는 나의 사회학에서도 명제는 각별한 개념이다. 명제는 모든 정보들의 오리지널티이며 원천이다. 명제가 없으면 새로움도 없다. 만약 문창옥 교수의 주장대로 주체적 지향이 명제적 느낌이라고 할 경우 인류의 문명은 곧 명제의 산물이라고 주장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예술은 문명이며(AI 349/413), 문명은 곧 명제의 산물이다.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객체화되고 있는 사태를 지칭할 따름이다.

이러한 명제의 실현은 흥미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명제를 판단의 대상 이전에 이미 유혹으로 던져지는 흥미로움의 대상으로 봤던 그의 탁월한 통찰에 기인한다. 물론 명제 자체가 흥미를 품고 있는 존재라고 보긴 힘들다. 단지 명제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될 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흥미나 유혹의 느낌은 명제 자체가 이미 능동적으로 불러일으킨다기보다 느낌의 주체가 명제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분명한 것은 그 명제가 오류이든 참이든 간에 우리는 흥미로움의 정도가 큰 명제에다 쉽게 <중요성>importance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흥미의 정도가 큰 것일수록 사람들은 과잉한 관심을 보여왔다. 생각해 보라.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고 심오한 예술성을 담은 작품이라고 해도 대중들에게는 귀가 즐거운 팝발라드가 더욱 잘 먹혀 들어가고, 재미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오락영화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포르노 산업이 불황을 모르는 까닭은 왜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주체적 지향에 있어 흥미의 정도가 큰 명제일수록 그만큼 더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화이트헤드는 교육에서도 <흥미>라는 요소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에서 “흥미 없이 정신 발달이 있을 수 없으며, 흥미는 관심과 이해를 위한 절대적 조건”(AE 31)이라고까지 말한다. 나아가 “분명한 것은 흥미 없이는 진전도 없다”(AE 31)라고 아예 못박아 버린다. 뭐든지 시작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정보일수록 더욱 귀

가 솔깃한 법이잖은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을 건들기 이전에 감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혹을 크게 느낀다고 해서 마냥 그 자신에게 흥미 있는 명제들을 쫓아서만 현실화하려 한다는 얘기도 결코 아닌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성적 느낌이 가져다주는 이성의 기능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도 인류사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를 제어하는 기제 또한 한편으로 발달되어 있어 그러한 흥미로운 명제들의 무차별적 실현이 제약을 받는 현실도 우리가 엄연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한 측면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사회적인 법체계나 규범 같은 것들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성인군자들의 사회가 아닌 한 그야말로 그 사회는 1차적인 저마다의 욕망들을 곧바로 배설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뻔하다. 꼭꼭 숨겨진 본능에 대한 해소일수록, 저급한 욕망에 대한 배설일수록 그 쾌감의 정도는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른바 잠복되어 있는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이랄까.²¹⁾ 명제에 대한 느낌이 작동된다는 것은 무의식에서조차

21) 만약 흥미를 유발하는 명제에 대하여 이를 제어하는 기제가 별로 없이 무조건적인 현실화가 최대한 허락되는 지점이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 그곳은 아마도 <상상>의 지점일 뿐이겠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현실화라기보다 비교적 느낌에 따른 개념적 시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우리는 상상적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강간도 할 수 있다. 상상의 나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상까지도 완벽하게 흥미로운 명제를 마냥 쫓는 것이라고는 보질 않는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지평에서부터 작동되고 있는 <양심>이란 것 때문이다. 물론 그 자신이 양심을 자각하는 것은 의식의 지평이겠지만, 그것은 의식 이전의 경험에 해당하는 인과적 효과성의 차원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즉, 양심은 상상의 나래에서조차도 이러한 상상적 명제들을 어느 정도 간섭하는 기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양심의 내용은 그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라는 삶의 자리에

그 어떤 욕구 혹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제적 느낌 자체가 비윤리적 측면을 지닌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명제적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이 저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추동되는 삶의 의욕이나 동력을 결코 지닐 수 없을 것이다.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것 역시 명제적 느낌에 의해서잖은가.

이처럼 명제에게는 두 얼굴이 있을 따름이다. 어떤 면에서 명제라는 존재의 출현은 우리의 우주 시대에 비극을 낳는 원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1차적으로 흥미로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빈번한 오류를 야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면에 명제는 세계 안에 새로움과 활력을 불어넣기에 삶의 매너리즘을 차단하는 신선한 존재이기도 하다. 명제가 없다면 인류의 활기찬 모험도 진보도 결코 있을 수 없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오류는 우리가 진보를 위해 치르는 대가”(PR 350)이자, “오류는 보다 고등한 유기체의 징표이며, 상승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교사다.”(PR 320). 사실 화이트헤드가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도 분명하다. 어떤 부족의 관습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무례하게 범하는 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경우도 있다. 단지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양심은 타자에 의해 무의식에서부터 형성된 것이기에 우리가 펼치는 상상의 나라들도 실은 은연중에 조금씩은 걸러져 나온 채로 의식의 지평에서 작동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양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근친상간에 대한 상상이 상상의 영역에서조차 웬지 꺼림칙하고 죄악시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양심이란 그 자신이 경험해왔던 사회 집단에 대한 축척된 느낌들을 무의식에서부터 빚어내고 있는 <자기 제어> 기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 이러한 <상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발산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사이버스페이스>를 들 수 있겠다. 대체로 인류의 위대한 문명들은 명제적 느낌의 한 유형인 <상상적 느낌> imaginative feeling에 커다란 빛을 지고 있다.

잘 보았듯이 명제가 판단의 구성요소가 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오히려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말은 거짓”(PR 79/176)이라고 하잖은가. 이를 증명하듯 실제적인 인류의 문명사는 거의 무뇌아적인 흥미만을 쫓아 저급하고 단순한 욕구들에 집착하는 행태들을 수없이 보여왔었다. 지성적 느낌이 명제와 결합체와의 대비를 기본 여건으로 하는 느낌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흥미로움으로서의 대상이 되는 명제를 마냥 흥미로움으로서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성적 느낌을 수반하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들 역시 요구된다. 그럴 경우 우리네 삶은 보다 나은 합리적 증진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 화이트헤드가 말한 이성의 기능이기도 하다. 크라우스(E. M. Kraus)는 “명제가 느낌을 위한 유혹이라면, 판단은 그런 유혹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한다.²²⁾ 세계의 전진은 우리 안에 개입되는 명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

합리적 이성인은 이러한 명제의 흥미정도에 마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성으로 치리할 줄 아는 정도가 높은 자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때의 지성적 느낌은 결합체와 명제간의 대비의 강도(intensity)가 매우 복잡하고도 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랜 <공부>Kung-Fu로 쌓은 수련의 결과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은 경제적 소외보다 치명적인 것이 <정보의 소외>라는 사실이다. 교육이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한 정보의 보존과 전달이며, 미숙하게 보이는 백짓장 같은

22) 문창욱, op. cit., p.290.에서 재인용(E. M. Kraus, *The Metaphysics of Experience: A Companion to Whitehead's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79], p.94. 참조).

자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명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11. 미드가 보는 자아와 사회

나의 <단위 행태> 이론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개념장치들이 전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비단 화이트헤드뿐 아니라 사회학자 미드에 대해서도 빚지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개인의 행위는 그가 구성원으로 있는 전체 사회집단의 행위들을 고려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행위는 그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합으로 구성됨으로써 설명될 수는 없고 언제나 진행 중인 동적 총체로 보아야만 한다.”²³⁾

미드에 따르면 관찰이 가능한 지점은 딱 부러지는 개별자들이 아니라 동적인 사회 과정과 그 구성 요소인 사회적 활동들 뿐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내적 경험을 무시한 행동주의는 아니었다. 미드에게서 “자아는 정신, 두뇌 또는 그 밖의 기관들에 위치 지울 수 없고 오히려 전체 신체와 관련되고, 자아와 신체가 관련되는 한 그 자아는 세계 환경과도 관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는 신체, 행동, 환경의 통합을 포함하며, 그것이 사회 과정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 논의로 이해되어선 안된다.”²⁴⁾ 미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아 의식적

23) MSS 6-7.

24) George Herbert Mead, "1927 Class Lectures in Social Psychology", in David.

인 개인이 존재하기에 앞서 사회과정이 이미 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²⁵⁾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다수 타자들의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다수 타자들의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때 인간은 나이를 먹고 성장할수록 생활환경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중층 구조들에까지 인지의 폭을 점차로 넓혀간다. 즉 자아는 과정적 단위이면서 동시에 성장한다. 자아는 발전하는 것으로 사회 경험과 활동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며 전체로서의 사회 과정들과의 관계들을 통해 개인에게서 발전되는 것이다.²⁶⁾

이때 사회적 행위의 상호작용에서 타자에 대해 인과적으로 개입되는 <대상적 측면으로서의 나>가 자아의 한 측면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데 그는 이것을 자아의 <me>국면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에 반해 타자에 대해 응답하는 <주체로서의 국면>이 있는데 그는 이것을 자아의 <I>국면이라고 불렀다. 미드가 보는 자아란 바로 <me>와 <I>의 대화인 것이다.²⁷⁾ 사실 이점은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를 <타자원인성>과 <자기원인성>을 함께 가진 것으로 봤던 점과도 상응하는 맥락이다. 즉, 미드의 자아 이론에서 화이트헤드의 인과적 효과성에 해당하는 측면이

L. Miller (eds),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Sel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148.

25) MSS 186.

26) MSS 135.

27) 그런데 사실 자아의 이러한 두 국면은 미드가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논의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제임스는 그 자신의 경험주의 심리학에서 모든 인간은 <대상으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 즉 타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새로움을 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미 말한 적 있다(William James,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1980], pp.135-176. 참조). 물론 화이트헤드도 제임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임은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있다면 <me>가 될 것이며, 현시적 직접성의 측면은 <I>가 될 수 있겠다. 미드에게서 <me>는 자아의 인습적이고 관계적인 조직체, 개인의 행위에 지침이 되는 타자들의 태도로 구성되는 반면에 <I>는 자아의 능동적, 성찰적, 창조적, 자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단위 행태에서는 <me>와 <I>의 구분이 대체로 무의식-의식 중추로 수렴되는 과정과 이후에 발산되는 과정에 각각 상응된다.

12. 산출된 태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진보

결국 <모호한 총체성>vague totality에서부터 그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지각 느낌들은 이러한 경로들을 거쳐 마침내 지성적 판단에 따른 태도로서 그 자신의 신체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신체를 통해 산출된 태도는 그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몸짓>일 수도 있다. <말>이라고 할 경우 한 단어, 한 음절이기도 하고, <몸짓>이라고 할 경우 숨을 한번 쉴다거나 눈을 깜빡이는 동작이 하나의 단위 행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신체를 통해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 간에, 하나의 단위 행태는 의식 중추를 이루는 계기에 실현된 하나의 핵심 명제가 신체를 통해 드러난 사태를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명제에 작동된 술어는 <핵심 가능태>다. 이러한 명제의 실현은 결합체와의 대비를 여건으로 하는 지성적 느낌을 거쳐서 나올 수도 있고, 명제적 느낌이 결합체와의 대비를 이루지 않고 신체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전자는 의식적 행태에 속하고, 후자는 무의식적 행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단위 행태가 연속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그것

은 보다 점점 분명하고도 뚜렷한 말과 행위를 그려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단위 행태들이 반드시 의식적 태도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해야만 한다. 잠자는 동안의 사람의 행태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인간은 의식 이전에 이미 무의식적 경험에 기반해 있다. 만약에 어떤 단위 행태가 선행하는 단위 행태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일정한 맥락이 결여된 산만한 연속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경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도무지 일관성을 결여한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무의식적 행태는 대체로 명제적 느낌과 <물리적 목적>physical purpose간의 통합으로 인해 신체를 작동시킨 행태로 나타나는 것인데²⁸⁾, 이러한 반응이 잠 잘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일반적인 일관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행태로 빈번하게 나타날 경우 그 사람은 <자아분열증>이 심한 정신이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우리는 보다 분명하고도 이해가능한 일관된 원인을 찾기 위해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양태를 탐사해야만 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의식에 대한 탐구지만 그것은 곧 그 자신의 의식이 제어하기 불가능하리만큼 경험되어지는 세계에 대한 발견을 추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전체 세계는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길들이고 있는 무의식의 보고다.

태도는 신체에 국한된 심리학적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

28) 화이트헤드는 『상징활동』Symbolism에서 <순수하게 본능적인 행동>instinctive action과 <반사적 행동>reflex action 그리고 <상징적으로 조건지워진 행동>symbolically conditioned action이라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S 78/96-98), 여기서 무의식적 행태는 주로 <순수하게 본능적인 행동>과 <반사적 행동>에서 발견되어진다. 특히 후자인 <반사적 행동>은 성공적인 적응이 완료되어 길들여진 습관적·반복적 행동을 의미한다.

로 이해하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사태에 대한 그 자신이 갖는 특성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신체에 따른 심리적 요소란 단지 세계와 나의 행태를 이어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럴 경우 가장 올바른 심리학적 치유는 신체에 국한될 수 없으며 전체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마저 동반해야 옳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네 사회를 정화하는 민주화 투쟁과 그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의 성격 장애에 대한 치유가 결코 동떨어진 별개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련성을 곧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즉 신체에 제한되고 있는 심리적 복돋움은 그 사회 전체의 건강한 회복과 함께 병행되어야 마땅하며 그럴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이뤄진다고 하겠다.

동일한 현실적 존재가 있을 수 없듯이 이 우주 안에서 동일한 단위 행태 역시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단위 행태로 산출된 태도는 선행하는 타자로서의 세계에 대한 인과적 영향으로 인해 거기에는 그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일정한 원리가 잠복해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지배적인 욕구는 첫째로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의 증진으로서의 욕구가 있을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도 인류는 1) 산다, 2) 잘 산다, 3) 더 잘 산다를 위하여 즐기게 나아갈 뿐이다(FR 역 48-49). 적어도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목적에 속한다. 이것은 각각 1) 생존하는 것, 2) 만족할 정도로 생존하는 것, 그리고 3) 그러한 만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에 해당하고 있다. 이때 그러한 만족의 최종적 이상을 나 자신은 <GIO 만족>God-I-Others satisfaction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세계 안의 대부분의 단위 행태는 <자본축척>을 지향

하는 삶의 태도로 곧잘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자아실현을 계급상승에 두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실현으로서의 물질적 성공은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신화에 속한다. 이러한 자본축적을 지향하는 단위 행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는 작금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일반화된 타자>로 굳어져 갈 것이다. 윌러스틴이 보았던 <세계 체제>라는 것도 나의 사회학적 구도에 따르면, 바로 자본축적을 지향하는 단위 행태들이 합종연횡하는 가운데 그 어떤 거대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한 상황구조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엄밀한 이해를 위해선 각자가 처한 다양한 세계사적 상황 즉, 정치적·경제적·지리적·문화적 여건으로 인한 저마다의 복잡다양한 양태들을 세분화시켜 고려할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산출된 태도는 결국 다수 타자들의 객체적 여건 속에 놓임으로써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굳이 화이트헤드가 말한 <객체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의 차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새로운 변화가 열매 맺어서 새로운 사회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역시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그럴 경우 <단위 행태>unit attitude의 구도에서 고찰해보자면, <진보>progress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회변화는 기존의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는 용기 있는 문제자들의 <새로운 태도>a new attitude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느 사회평론誌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의 진보 지식인에 속하는 진중권은 “진보란 바뀌어야 할 것을 바로 지금부터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태도>의 이름이다”이라고 말한 적 있다. 내가 보기에

도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진보>란 보다 나은 합리적 가치를 위한 모험에 돌입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그토록 <모험> adventur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화이트헤드의 철학 가운데서 우리네 삶을 기름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모험>을 들겠다. 모험은 화이트헤드 철학 사상이 이 땅의 문명사에 드러내고자 하는 최종적 저의이다. 물론 대책 없는 모험은 <청춘>²⁹⁾의 것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물은 그 본성상 청춘의 꿈과 비극의 결실을 품고서 우주의 모험을 감행한다(AI 381/446). 이때 문명의 진보란 결국 <오류>error와 <비극>tragedy을 그 스승으로 삼아서 철저히 견뎌내질 때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단위 행태는 바로 이 같은 점을 부단히 지향할 때 상향적인 자기 성장과 세계에 대한 합리적 변혁이 점근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합리적 진보는 결국 곧 오류와 비극에 대한 반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제4장 나오며

실로 세계 안에는 수많은 단위 행태들이 있으며, 나 자신을 형성하는 단위 행태에도 수많은 단위 행태가 빼곡하게 그 어떤

29) “청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정의는 그것은 아직 비극에 접해 본 적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다.”(AI 369/435).

경로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것은 매순간순간 나의 삶을 결정 짓는 질서어린 결합체이다. 이때 이러한 단위 행태가 연속체를 이루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형성할 경우, 나는 이를 <실재적 개인>real individuality으로 이해한다. 사실상 그 실재적 개인은 타인들뿐 아니라 신(God)과 주변 환경을 이루는 타자들(Others)과 상호 관계하는 가운데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개인이다. 이때 <인격적 동일성>이란 것도 실재적 개인이 갖는 한 종류의 느낌에 불과하다. 물론 그 느낌은 기나긴 존속을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개체 인간도 결국은 <단위 행태의 연속체라는 실재적 개인>으로서 고찰할 때에 보다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나는 <단위 행태>라는 개념을 통해 화이트헤드 철학을 사회학적 지평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보았다. 그러나 지면상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실린 것 역시 아니다. 여전히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도 있긴 하지만, 본 연구논문은 이제 막 사회과학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화이트헤드 사상의 새로운 모험을 위한 서막으로서 이해해주길 바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물론 그 밖의 다른 쟁점들, 예컨대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 구상에 있어 신(神)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와 사회학 방법론의 문제 역시 시급한 쟁점적 논의에 속할 수 있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 사회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실증적 영역인 사회학의 지평에 사변적인 철학이나 신학 진영에서나 논할 수 있는 <신>God이라는 존재가 들어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드 사회학에서조차도 이러한 부분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 사회학의 차원에서는 결코

불러들이기 힘든, 매우 낯선 논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 밖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작동되는 여러 다양한 이데올로기나 계급적 갈등 그리고 정치 이념 등등 많은 개념들도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전망에 따라 새롭게 분석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화이트헤드 사상의 창조적 응용 연구 역시 『과정과 실재』만큼이나 두꺼운 책 한 권을 써야 될 정도로 상당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더욱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학 구상이라는 응용 작업은 여전히 매우 드문 학문적 성과에 속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나의 시도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는—어차피 모든 이론들의 경합 역시 마찬가지로—궁극적으로 그 설명력 확보의 차원에서 평가될 따름이다. 적어도 여러 화이트헤드안들과 사회학자들에게도 오직 그런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도 정직한 평가만을 기대할 뿐이다.

진부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학문의 목적은 화이트헤드가 말한 이성의 기능처럼 우리네 삶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갖는 파워를, 사회학이라는 학문상에서의 창조적 응용을 통하여 우리네 삶을 보다 깊이 해명함으로써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하고 유익함들을 더욱 증폭시키고자 하는 데에도 또한 그 바람과 목적을 두고 싶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언제나 다양한 분과 학문들에서의 창조적 실험과 새로운 응용의 모험들을 기다리고 있는, 탁월하게 준비된 사상이기도 하다. 사실상 백두 사상의 파워와 그 한계도 결국 우리가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해 봐야 알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잖은가. 바야흐로 백두 형이상학에 대한 활발한 응용 연구로서의 모험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을 나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 화이트헤드 저서와 약어

- PR —————. (1978). *Process and Reality : An Essay in Cosmology*.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오영환 역. (1991). 『과정과 실재』. 서울: 민음사.
- FR —————. (1958). *The Function of Reason*. Boston: Beacon Press., 도올 김용옥 옮김. (1998). 『이성의 기능』. 서울: 통나무.
- AI —————. (1961).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Free Press., 오영환 역. (1996). 『관념의 모험』. 서울: 한길사.
- MT —————. (1968).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오영환·문창욱 옮김. (2003). 『사고의 양태』. 서울: 다산글방.

● 국내 문헌

- 기든스, 앤서니 / 김미숙 외 6명 옮김.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도올 김용옥, 『아름다움과 추함』. 서울: 통나무, 1996.
- 문창욱.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서울: 통나무, 1999.
- 윌러스틴, 이매뉴얼 / 나중일·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 /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서울: 당대, 1996.
- / 백영경 옮김. 『유토피스틱스 :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 / 백승욱 옮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 21세기를 위한 사회과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 부르디외, 피에르 / 조홍식 역. 『과학의 사회적 사용-과학장의 임상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외국 문헌

- Cook, Gary Alan. "Whitehead's Influence on the Thought of G. H. Mead", in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Vol. XV, No. 2. 1979,

pp.107-131.

- Hanna, Thomas. *The Body of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1979.
- Crothers, Charles. *Robert K. Merton*. London: Tavistock, 1981.
- Goffman, Erving. *Interaction Ritual : Essay on Face to Face Behavior*. Garden City, NY: Anchor, 1967.
- James, William.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1980.
- Kraus, E. M. *The Metaphysics of Experience; A Companion to Whitehead's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79.
- Mead, G. H. "1927 Class Lectures in Social Psychology", in David. L. Miller (eds).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Sel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 IL: The Free Press, 1957.
- Merton, R. K. • *Sztompks, Piort An Intellectual Profile*. New York: St. Martin's, 1986.
- Miller, David L. *George Herbert Mead: Self, Language and the World*.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3.
- Parsons, Talcott. *The Structures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1968.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Yen-Ling, Chang. "The Problem of Emergence: Mead and Whitehead", *Kinesis* 2. 1970, pp.69-80.

[Abstract]

Study on unit attitude : Sociological application concept of Whitehead's philosophy

Jeong Kang-Gil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thesis is a writing containing study on unit attitude which can be used as a basic core concept in working on <New Sociology> based on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Unit Attitude> suggested here can be used as a basic concept on the sociological horizon in understanding the mode of human society.

I will call <Society>, which is atomic unit of the most basic sociological horizon in forming human being's community, as <Unit Attitude>. While Whitehead's actual entity is atomic concept of metaphysical ontology, <Unit Attitude> I suggest here is the most basic unit existence at sociology in forming human being's society based on events in which actual entities react with each other. We can think that so called, <Sociological Imagination> is added to Whitehead's metaphysics. And, this kind of unit attitude forms a continuum and makes up a person's personality. I will call this event as <Real Individuality>.

<Unit Attitude> is similar to habitus which connects structure

and behavior suggested by P. Bourdieu, a France sociologist, but <Unit Attitude> is an analyzed concept in more detail than habitus of P. Bourdieu.

The existing sociological studies have not been inquired to be laid up to the horizon of metaphysical horizon. In this respect, we can imagine new sociological theory based on Whitehead's process metaphysics.

Key Words : Whitehead, new sociology, unit attitude, Mead, civilization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연혁

1997. 03. 29 창립총회 및 제1차 정기학술대회 (연세대)
초대회장으로 연세대 오영환 교수 취임
1998. 02. 13 제2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대구기톨릭대)
주제 “화이트헤드: 창조성의 형이상학”
1998. 12. 01 『화이트헤드 연구』 창간호 발간
1999. 03. 27 제3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충남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문명론”
제2대 회장으로 연세대 오영환 교수 취임
1999. 12. 01 『화이트헤드 연구』 제2집 발간
2000. 02. 12 제4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감리교신학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종교적 경험”
2000. 12. 01 『화이트헤드 연구』 제3집 발간
2001. 02. 13 제5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경상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현대철학”
제3대 회장으로 대구기톨릭대 안형관 교수 취임
2001. 12. 01 『화이트헤드 연구』 제4집 발간
2002. 02. 01 『화이트헤드 연구』 제5집 발간
2002. 02. 23-24 제6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인제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동양사상”
연세대 오영환 명예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증정
2003. 02. 08 제7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계명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현대문화”
제4대 회장으로 한신대 김상일 교수 취임
2003. 06. 28 『화이트헤드 연구』 제6집 발간
2003. 12.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7집 발간
2004. 02. 21 제8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한신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교육”
2004. 05. 24-28 제5차 화이트헤드 국제학술대회 (여전도회관)

2004. 06.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8집 발간
2004. 12.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9집 발간
2005. 02. 18 제9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충남대)
주제 “화이트헤드와 환경”
제5대 회장으로 충남대 정연홍 교수 취임
2005. 06.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0집 발간
2005. 10. 29 제18회 한국철학자대회 분과학회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학술대회 (전북대)
2005. 12. 31 『화이트헤드 연구』 제11집 발간
2006. 01. 13-14 2006년도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워크샵 (충남대 임
해수련원)
2006. 04. 07 학회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연세대)
주제 “화이트헤드 철학의 회고와 전망”
2006. 06.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2집 발간
2006. 11. 04 제19회 한국철학자 연합학술대회 분과학회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학술대회 (서울대)
2006. 12.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3집 발간
2007. 04. 07 제 11차 정기총회 및 정기 학술대회(충남대)
주제 “화이트헤드 철학과 동서사상”
제6대 회장으로 연세대 문창옥 교수 취임
2007. 06.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4집 발간
2007. 12.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5집 발간
2008. 05. 24 제12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이화여대)
주제 “화이트헤드 철학과 21세기”
2008. 06. 30 『화이트헤드 연구』 제16집 발간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정관

- 제1조 본 학회는 한국화이트헤드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화이트헤드 철학 및 그 학제적 연구, 그리고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 개최
 2. 정기 학회지의 간행
 3. 화이트헤드 원전 독해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필요로 하는 사업
- 제4조 본 학회의 회원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이나 이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자 및 연구하려는 자로 한다.
- 제5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 문 : 약간명
회 장 : 1인
부 회 장 : 약간명
총무이사 : 1인
편집이사 : 1인
학술이사 : 1인
연구이사 : 1인
섭외이사 : 1인
국제교류이사 : 1인
이 사 : 20인 내외
편집위원 : 10인 내외
감 사 : 2인
총무·편집·학술·연구·섭외·국제교류간사 : 각 1인
- 제 6조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출석인원

으로 개최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 7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에게 일임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8조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9조 총회는 본 학회 활동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일반보고, 회계보고 및 기타 필요한 보고를 받는다.

제10조 감사는 연 최소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1조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맡고 총무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하며,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제12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주재하고 학회지의 출간업무를 관장하며 편집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학술이사는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월례학술활동을 기획관리하며 학술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한다.

제14조 연구이사는 학회의 회원다수가 참여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관장하며 연구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국내 타 학술단체나 유관기관과 연관된 업무를 관장하며 섭외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한다.

제16조 국제교류이사는 국외 학술단체나 유관기관 연관된 업무를 관장하며 국제교류간사는 이 업무를 보조한다.

제17조 본 학회의 사무처 소재지는 2년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본 학회의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이 차등 납부한다. 회장단 연 100,000원, 이사 및 편집위원 연 50,000원, 평회원 연 20,000원을 납부한다. 그밖에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

정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20조 본 회칙은 제7차 정기총회의 의결(2003년 2월 8일)을 거쳐 효력을 갖는다.

『화이트헤드 연구』 투고규정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비를 연체한 일이 없어야 한다. 단 신규 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고 논문은 미발표된 연구 논문, 최근 발표된 저서나 학술 논문에 대한 서평 및 논평 등으로 한다.
3. 투고 논문의 길이는 각주와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대상이 아닌 초청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0매를 초과하되 160매 이하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30매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실비(200×5매당 1만원)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서평 및 논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로 한다.
4.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편집실로 논문을 우송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으로 투고한 경우 출력물 1부를 편집이사에게 우송해야 한다. 투고는 논문 파일이 담긴 디스켓 또는 CD와 출력물 1부를 우송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학회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원고 파일이 수신된 시점을, 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이 편집실에 배달된 시점을 투고 시점으로 간주한다.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이사는 투고자에게 <논문접수확인서>를 보낸다.
5. 투고 논문은 『화이트헤드 연구』 최근호의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프로그램 : 한글 97이상
 - 2) 편집양식
 - (1) 편집용지
 - ◆크기
사용자 정의/ 가로 158.0mm / 세로 230.0mm
 - ◆여백

위 28.0mm / 아래 28.0mm / 왼쪽 28.0mm / 오른쪽 28.0mm
 / 제본 0mm 머리말 0mm / 꼬리말 12.0mm

(2) 스타일

구 분	글 자 모 양			문 단 모 양				
	글꼴/크기	자간	장평	줄간격	정렬	여백	첫째줄 (단위: pt)	
바탕 글	한 글	신명조/ 10.7	0	100	165	양쪽혼합	0/0	들여쓰기 10.0
	영 문	신명조/ 10.7	0	100	165	양쪽혼합	0/0	
	글 한 문	신명조/ 10.7	0	100	165	양쪽혼합	0/0	
논문제목	신명조/ 17.0	-5	100	165	가운데	0/0		
부 제 목	신명조/ 16.0	-5	100	165	가운데	0/0		
한글요약	중고딕/ 9.7	0	100	165	양쪽혼합	0/0	들여쓰기 10.0	
장 제 목	견명조/ 15.0	-8	93	160	양쪽혼합	0/0		
1), (1), ①	휴먼고딕/ 11.0	-10	90	180	양쪽혼합	0/0	들여쓰기 10.0	
인 용 문	신명조/ 9.7	-5	100	155	양쪽혼합	10/10	들여쓰기 10.0	
각 주	신명조/ 8.0	0	100	140	양쪽혼합	0/0	내어쓰기 13.5	
참고문헌	신명조/ 9.0	-5	100	155	양쪽혼합	0/0	내어쓰기 30.0	
Abstract 제목	신명조/ 14.0	-5	100	150	가운데	0/0		
Abstract 본문	신명조/ 10.7	-6	100	145	양쪽혼합	0/0	들여쓰기 10.0	

3)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 첨가(본문에서 인용한 것만 수록)

(1)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문헌, 저자 이름은 가나다와 알파벳순으로 한다.

(2) 표기형식

① 저 서

동양어권 - 홍길동, 『화이트헤드의 철학』, 세기출판사, 서울, 1999.

서양어권 -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N.Y., 1978.

② 논 문

동양어권 - 홍길동, 「주역과 화이트헤드」, 『人間과 思想』, 제19집, 한국동서철학연구소, 2000.

서양어권 - Jorge Nobo, "Whitehead's Principle of Relativity",
Process Studies 8, 1978.

- 4)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한, 논문의
본문 항목구별은 1, 1), (1), ①로 표시한다.
 - 5) 논문요약문
 - (1) 언어 ; 한국어와 외국어(제목과 저자명 명기)로 각각 작성하
되, 주제어 5개를 명기해야 한다.
 - (2) 분량 ; 200자 원고지 2-3매
 - 6) 투고자 표기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인지, 공동저자인
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7) 논문집 원고마감일 및 발행일은 매년 5월 15일, 11월 15일이며,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이다.
 - 8) 맨 뒤에는 별도의 페이지에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과 소속(한
글/영문), 주민등록번호(학진입력사항임), 전자우편 주소와 우편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6. 논문접수처는 학회 홈페이지에 예시되어 있다.

『화이트헤드 연구』 심사규정

1. 한국화이트헤드학회의 『화이트헤드 연구』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한다.
2. 학회지 원고마감일(5월 15일과 11월 15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 원고마감일이 경과하면 편집이사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와 추천된 이의 전공분야 및 최근의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심사위원은 각 논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지닌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원이 아닌 이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편집이사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서와 더불어 투고자의 이름이 삭제된 투고논문 복사본이 우송된다.
5. 각 심사위원은 학회 홈페이지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출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 수정할 부분과 수정방향을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문제의식의 선명성과 창의성, 논증의 적절성, 구성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 1·2차 문헌의 활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통과 여부를 판정하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 단계 중 하나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이하의 판정을 내는 경우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논문의 마무리 손질을 위해 가능한 한 상세한 심사의견을 적시해야 한다.

7.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의식의 선명성과 창의성
 - 2) 논증의 적절성
 - 3) 논문구성의 완성도
 - 4) 학문적 기여도
 - 5) 1·2차 문헌의 활용
8.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을 게재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회의 경우 아래와 같은 평가등급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경우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처 리 방 법
1	1인	1인	1인	·	경우 1, 2, 4, 12, 13, 14 - 수정시 게재가
2	1인	1인	·	1인	
3	1인	·	1인	1인	
4	1인	2인	·	·	
5	1인	·	2인	·	
6	1인	·	·	2인	경우 3, 5 -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7	·	1인	1인	1인	경우 6, 8, 10, 16 - 게재불가
8	·	1인	·	2인	
9	·	1인	2인	·	
10	·	·	1인	2인	경우 7, 9 - 수정시 그리고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11	·	·	2인	1인	
12	·	2인	1인	·	경우 11, 15 - 재심사 결과가 2인이상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13	·	2인	·	1인	
14	·	3인	·	·	
15	·	·	3인	·	
16	·	·	·	3인	

9. 논문의 게재여부 판정과 재심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편집 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10. 학회지의 정시발행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논문은 발행일 이전에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호로 게재가 미뤄진다.
11. 영문초록의 언어적 수준은 심사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문의 투고자는 반드시 원어민(native speaker) 수준의 검토와 손질을 거친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미뤄질 수 있다.

12.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이사는 1) 본 학회에서 구도 발표된 논문, 2)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의 순서에 따라 게재될 논문을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된다.
13. 편집이사는 일반 투고논문 이외에 <특별기고> 또는 <초청논문>의 형태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지닌 이의 논문을 심사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학회지에 해당 사실을 명기한다.
14. 편집이사는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며,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 연구』 윤리규정

총칙

- (1) 본 규정은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2) 본 규정은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학술지 ‘화이트헤드연구’에 관련한 논문 저술자 윤리, 논문 편집자 윤리, 논문 심사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3) 본 규정은 (1), (2)의 연구윤리 확립을 저해하는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 당사자와 그의 연구물에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논문 저술자 윤리규정

- (1) 논문 저술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논문에 반영하면서 그 출처와 저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 여기서 참고의 대상은 학술지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미발표 원고, 전자문서, 강연이나 강의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여기 열거된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 (2) 논문 저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면 안 된다.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 예정인 논문을 투고한 경우 이중투고가 된다.
- (3) 논문 저술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그 출처와 저자를 각주 또는 후주에서 밝혀야 한다. 여기서 인용의 대상은 학술지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미발표 원고, 전자문서, 강연이나 강의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여기 열거된 형태에 국한되

지 않는다.

논문 편집자 윤리규정

- (1) 학술지의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관한 결정과 결부된 모든 책임을 진다.
- (2) 학술지의 편집인은 논문이 그 자체로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 이외에 다른 조건이 논문의 평가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3) 학술지의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에게 평가 의뢰해야 한다.
- (4) 학술지의 편집인은 심사자에게 논문 평가를 의뢰할 때 논문의 저자에 관한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
- (5) 학술지의 편집인은 논문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학회 편집위원회와 심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논문 심사자 윤리규정

- (1) 논문 심사자는 논문 편집자가 정한 기한과 심사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 (2) 논문 심사자는 논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심사자의 편견에 의해서 논문을 평가하면 안 된다.
- (3) 논문 심사자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 대한 전체적 의견과 각 부분별 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자세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
- (4) 논문 심사자는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과 논문내용을 가지고 의논을 하거나 논문을 외부에 열람시키면 안 된다.

윤리규정을 어긴 논문에 대한 제재

- (1) 논문 편집자 혹은 논문 심사자가 평가하기에 윤리규정을 어긴 논문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을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더불어 윤리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해당 논문저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윤리위원회 구성

- (1) 본 학회 학술지 ‘화이트헤드연구’에 투고된 논문 중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의심이 가는 논문이 발견되면 학회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 중 학회장이 지명한 2인, 해당 논문의 심사자 2인, 그리고 해당 논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 (3)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엄 정하게 심의하여 판정해야 한다.
- (4)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의 효력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발생한다.

An Overview of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intellectual giants of the twentieth century, is the reason of existence for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Against the dominant trend of increasing specialization and narrow concentration of interest that has characterized the academic world in the twentieth century, Whitehead attempted to produce a comprehensive metaphysical system that would not only unify the sciences, both natural and social, but also provide a common basis for all areas of inquiry. In order to formulate such metaphysics, Whitehead produced 'the philosophy of organism'. Later, following the spirit of the philosophy of organism, the successors of Whitehead have called his philosophy 'process metaphysics'.

The main purpose of our Society is, employing Whitehead's philosophy, not only to promote further awareness of Whiteheadian process thought in Korea, but also to reflect together on ways in which process thought wants to make some contributio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philosophies, sciences and other academic areas.

Furthermore, another purpose of our Society is to have an international connection with the Societies and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So far, we hav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Canada, Japan and China.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was founded in 1997. The Society's first annual conference was held in Yonsei University in Seoul.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of Whitehead Studies was published in the fall of 1998. Up until 2002, the journal has been published annually by our Society, with its English abstracts in the back. However, since 2003, it has been published twice a year. The Journal of Whitehead Studies is

now proudly publishing the latest edition, its eleventh. The journal is open for all members of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the selection procedure for publication is strictly regulated and judged by the Proceedings Committee. Each paper submitted will be carefully examined by three committee members in a closed meeting.

Since 1998, the subsequent annual conferences have been held a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1998),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Daejeon(1999),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2000),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Jinju(2001), Inje University in Busan(2002), Keimyung University in Daegu(2003), Hanshin University in Gyonggido(2004),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Daejeon(2005). So far, the presidents of our Society have been Young Hwan Oh(Yonsei University), Hyung Kwan Ahn(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ang Yil Kim(Hanshin University) and currently Youn Hong Chung(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time, one of the important projects of the Society has been to read and discuss regularly Whitehead's books in discussion groups. The discussion groups, which are a four-hour meeting, have been held every week or every month in many cities, like in Seoul, Daejeon, Daegu and Busan, reading and discussing Whitehead's books and related materials.

In 2004, we held the 5th International Whitehead Conference on "Process Philosophy and East Asian Culture." The 5th International Whitehead Conference 2004, Korea was held in Seoul during May 24-28. The theme of the Korea Conference wa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hitehead's Thought and East Asian Culture."

2008년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임원 명단

- 고 문 : 오 영 환 (연세대), 안 형 관(대구가톨릭대)
 정 연 홍 (충남대)
- 회 장 : 문 창 옥 (연세대)
- 부 회 장 : 이 동 희 (계명대), 정 병 훈 (경상대)
- 이 사 : 김 병 준 (변호사), 김 상 환 (서울대), 김 세 정 (충남대),
 김 용 옥 (세명대), 김 용 환 (한남대), 김 은 용 (한남대),
 김 진 근 (교원대), 김 혜 경 (대구가대), 박 소 영 (화가),
 신 현 경 (영산대), 이 대 식 (대구대), 이 세 혁 (협성대),
 안 중 수 (인제대), 장 옥 (연세대), 장 종 철 (감신대),
 조 용 현 (인제대), 최 신 한 (한남대), 최 종 덕 (상지대)
- 감 사 : 전 원 섭 (연세대), 김 영 진 (영남대)
- 총 무 이 사 : 박 상 태 (성균관대)
- 학 술 이 사 : 이 태 호 (대구가톨릭대)
- 연 구 이 사 : 전 병 기 (대구가톨릭대)
- 섭 외 이 사 : 이 현 휘 (건국대)
- 국제교류이사 : 장 왕 식 (감신대)
- 총 무 간 사 : 정 윤 승 (충남대)
- 학 술 간 사 : 남 순 예 (충남대)
- 연 구 간 사 : 정 강 길 (한신대)
- 섭 외 간 사 : 이 경 호 (감신대)
- 국제교류간사 : 박 진 순 (클레어폰트대)
- 편 집 이 사 : 고 인 석 (인하대)
- 편집 부이사 : 김 희 현 (한신대)
- 편 집 위 원 : 권 오 대 (포항공대), 이 재 경 (연세대), 김 상 환 (서울대),
 문 창 옥 (연세대), 윤 자 정 (동의대), 정 연 홍 (충남대)
 윤 철 호 (장로신대), 이 동 희 (계명대), 최 종 덕 (상지대)
 장 왕 식 (감신대), 정 병 훈 (경상대), 한 상 기 (전북대)
- 편 집 간 사 : 양 기 문 (연세대)

화이트헤드 연구 제17집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한국화이트헤드학회

발행인 문창옥

편집인 고인석

편집교정 양기문

출판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402-105

전화 : 02-333-7533 / 팩스 : 02-6280-2353

홈페이지 : www.book-dks.com

한국화이트헤드학회

120-746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철학과

문창옥 교수 연구실

전화 : 02-2123-2402 (019-248-3440)

홈페이지 : <http://whitehead.or.kr/>

ISSN 1229-1501 (17)

